ISSN 2465-8499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KSN NEWS

대한신장학회 2026 AUTUMN Vol.43

13 KSN 2026 수상소감
18 KSN 2026, 질문으로 내일을 빚다
22 유럽신장학회(ERA) 2026 참관기
26 일본신장학회(JSN) 소개
28 C3G 및 Primary IC-MPGN의 새로운 표적 치료제: Pegcetacoplan
36 노인신장학연구회 소개
38 신임 홍보위원회 포부 및 소감



재단법인 신장학연구재단
KOREAN NEPHROLOGY RESEARCH FOUNDATION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은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은 암, 치매, 심혈관질환보다
환자 1인당 진료비가 높은 질병으로
매년 9%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장학연구재단은 만성콩팥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치료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성콩팥병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세요.





기부 절차 신장학연구재단 접속하여 기부신청서를 제출

기부해주신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기부금 입금 계좌: KEB하나은행 147-910022-76004 (예금주: 재단법인 신장학연구재단)
문의처: 02)3486-8736, k-nrf@ksn.or.kr

출처: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 자료

대한신장학회 소식지

KSN NEWS

2026 AUTUMN Vol.43

KSN NEWS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소식과
신장학 분야 최신 동향을 담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대한신장학회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발행인 최범순
발행처 대한신장학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23
미승빌딩 301호
전화 02-3486-8736
홈페이지 www.ksn.or.kr
편집위원 황원민, 이동형, 박지현, 박우영
박요한, 이경호, 이수아, 이하은
최아란, 한승석, 정유경, 권소이
박봉수, 구상건, 백진혁, 박세훈
이금화, 지종현, 이진혁, 박철호
이연희

디자인 및 제작 에그피알 02-318-8317

CONTENTS

Section 01

04 **인사동정**
박형천 제19대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퇴임사
최범순 제20대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취임사
이수봉 제41대 대한신장학회 회장 퇴임사
이 식 제42대 대한신장학회 회장 취임사

12 **신임 이사진 명단**

13 **KSN 2026 수상소감**
강신욱 공로상
이은영 학술상
정병하 학술상
김형우 젊은 연구자상

17 **KSN 2026 수상자 명단**

18 **특집기사**
강은정 KSN 2026, 질문으로 내일을 빚다

Section 02

22 **해외학회 참관기**
길효욱 유럽신장학회(ERA) 2026 참관기

26 **해외학회 네트워크 소개**
이지영 일본신장학회(JSN) 소개
(Japanese Society of Nephrology)

Section 03

28 **신약소개**
이하은 C3G 및 Primary IC-MPGN의
새로운 표적 치료제: Pegcetacoplan

32 **개원가 소식**
오영승 수치 너머의 삶을 읽는 눈
_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이서영 신뢰와 인연으로 지역사회에 스며들다
_연세아레나내과의원

36 **연구회 소식**
홍유아 노인신장학연구회 소개

38 **위원회 소식**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회 신임 홍보위원회 포부 및 소감

42 **주말엔 둘레길**
김진국 곱게 물든 단풍길을 따라 가을의 정취를 즐기는
단풍길 걷기

46 **주후원사 소개**
SK 케미칼 신장 질환 치료의 든든한 동반자

제19대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퇴임사



박형천
제19대 이사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학회 이사장직을 마치면서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

대한신장학회 제19대 이사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학회의 발전과 국민 콩팥 건강 증진을 위해 동행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며 19대 이사회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니, 감회와 함께 회원 여러분과 학회·재단 이사님들, 각 연구회 및 지회 회장님들, 그리고 사무국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지난 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임기의 3분의 2에 달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의정사태'라는 유례없는 의료계의 큰 시련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이 겪은 피로감과 불확실성, 그리고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야 했던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대한신장학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19대 이사회는 지난 2년 임기 동안 '국민에게 신뢰받는 학회, 세계를 선도하는 학회'라는 기치 아래 콩팥병 예방부터 치료, 정책 개선, 소통 강화, 그리고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 냈습니다.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 추진 및 국제 연대 활성화

우리는 만성콩팥병의 국가적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미국신장학회(ASN), 유럽신장학회(ERA), 국제신장학회(ISN),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APSN) 등 세계 최고 권위의 4대 글로벌 신장학회들로부터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콩팥병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한 뜻깊은 결실이었습니다. 비록 19대 임기 내 최종 법안 제정이라는 결실까지 이르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지만, 우리가 이끌어 낸 글로벌 연대와 정책적 기반은 향후 법안 제정을 이루어 낼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진 1] 박형천 교수와 총무단

'KHP2033' 비전 구체화 및 대국민·언론 소통 강화

학회는 2033년까지 만성콩팥병 환자 증가 억제 및 유병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KHP2033' 비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학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올



[사진 2] 서울 코엑스서 개최된 KSN 2026 단체사진

바른 정보 전달과 소통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인 "내 신장이 콩팥콩팥"을 활성화하여 콩팥 건강 정보, 식이요법, 투석 관리 등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보급했습니다. 또한 대중매체와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언론 채널을 활용하여 '콩팥점수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콩팥건강 토크콘서트' 등은 대중에게 콩팥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전달한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환자 중심 치료 환경 확대와 재택의료 수가·보상 체계 마련

학회는 의료진 중심의 학술 활동을 넘어,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료 현장의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학회 공식 행사에 환자 단체 대표 및 환자분들을 직접 초빙하여 진솔하게 소통하는 "환자 권익 세션(Patient Advocacy)"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 확대를 목표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성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복막투석 환자 진료에 따른 인센티브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인프라 강화 및 학회 행정 디지털화 작업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구 지원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혈액투석여과(HDF) 전문 간호사 교육 및 e-러닝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되었던 협연연구 과제들의 실행을 적극 지원하여 회원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였고, 사무국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 행정 디지털화를 이루어 투명하고 신속한 회원 중심 학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신장학 리더십 강화 및 미래 국제행사 유치

APCN 2024의 성공적 개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신장학회의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학회 회원들이 ISN과 APSN 주요 직책 진출에 성공하여 글로벌 커뮤니티 내 대한신장학회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11th Congress of Asian Pacific Society of Dialysis Access(서울, 2027)와 ISPD Asia Chapter Meeting(부산, 2027)과 같은 대형 국제학술대회 유치에 성공하여 세계 신장학 발전의 중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저는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의 직을 내려놓지만,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우리 대한신장학회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제20대 이사회가 열어갈 대한신장학회의 더 높고 찬란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연구실, 의료 현장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대한신장학회 제19대 이사장

박형천 올림

제20대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취임사



최범순
제20대 이사장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신장학회 제20대 이사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교육, 연구, 진료의 모든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2016년 KSN을 국제학술대회로 전환한 이후 이번에 10년째를 맞아 KSN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신장학 학술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역대 이사장님들과 집행부의 헌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성콩팥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 수탁사업 확대와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학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연구와 진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동시에 연구윤리와 데이터 보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지속과 제도화, 의정갈등 이후 심화되고 있는 신장학 전문인력 감소 문제는 우리 학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20대 집행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학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술단체를 넘어 공공성과 정책 영향력을 갖춘 학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 콩팥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 및 제도 정착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말기콩팥병 등록사업, 투석 적정성 평가, 재택 복막투석 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 신장질환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회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필요한 근거 기반의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 학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와 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의료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AI 활용 연구와 임상 적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회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원 중심의 학회를 구현하고 신장분과 전문의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가장 큰 자산은 회원 여러분입니다. 개원의, 봉직의, 교수, 연구자, 전공의 등 다양한 회원들이 학회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신장분과 전문의가 만성콩팥병 관리, 투석, 이식, 예방의료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갈등 이후 위축된 신장학 전문인력 양성 환경을 개선하고, 젊은 의사들이 신장학을 미래의 전문 분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제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미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장학 학술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2027년 개최 예정인 APSDA × KSN 및 APCM-ISPD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신장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장학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학회의 미래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저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대한신장학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술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회원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대한신장학회 제20대 이사장

최범순 올림

제41대 대한신장학회 회장 퇴임사



이수봉
제41대 회장
부산의대 내과학교실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제41대 회장 이수봉입니다.

2025년 6월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장으로서의 1년은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으나, 대한신장학회가 걸어온 길과 현재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게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회원과 임원, 위원회 위원, 사무국 구성원들의 노력도 새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2년 차 때 처음 대한신장학회에 참석한 이래 3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저는 학회가 한 사람의 의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 다른 세대와 지역의 회원들을 연결하는지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학회에서 만난 선배와 동료, 후배 선생님들은 제 의사로서의 삶과 학문적 여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회장 임기 동안 대한신장학회가 국제화와 학문적 확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국내의 신장학 지식을 공유하는 학술단체를 넘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학문적 성과를 나누고 국제적인 신장학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한 몇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학회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역대 임원진과 여러 위원회, 그리고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역할은 학술과 교육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만성콩팥병은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의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 적절한 치료와 교육, 투석과 이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부담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는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와 보건당국, 의료계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성콩팥병의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조기 검진과 예방정책, 적정 진료체계, 투석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신장이식 활성화, 재난과 감염병 상황에서의 환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학회가 축적한 학문적 근거와 회원들의 임상 경험이 국민건강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진료실과 학술대회장 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정책으로 연결될 때 대한신장학회의 존재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한신장학회에 정책이사 직책과 정책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저는 대한신장학회가 이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충분한 역량과 열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와 연구회, 지회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학술, 교육, 연구, 정책과 대외협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세대

와 지역, 근무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신장질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신장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 주신 이사장님과 임원진,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연구회와 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진료와 연구, 교육 가운데에서도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회 운영의 여러 업무를 성실하게 지원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신장학회가 앞으로도 학문적으로 깊고 넓은 학회,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학회, 국민과 환자에게 신뢰받는 학회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든 세대의 회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누구나 참여하고 싶고 참여한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학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장이라는 직책에서는 물러나지만, 대한신장학회의 한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책임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후배들의 성장을 돕고, 학문과 진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대한신장학회가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는 길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내 주신 신뢰와 격려, 협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신장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모든 회원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대한신장학회 제41대 회장

이수봉 올림

제42대 대한신장학회 회장 취임사



이 식
제42대 회장
전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제42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전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이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대한신장학회 회장으로 믿고 맡겨주신 평의원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학회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를 마음 깊이 새기며, 대한신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오랜 시간 선배님들의 헌신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학술 연구와 교육, 진료는 물론 국제 교류와 사회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하며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학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의 대한신장학회가 있기까지 묵묵히 길을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과 역대 임원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학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신장학을 공부하고 환자를 진료하며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학회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동료들의 격려가 있었고, 학회를 통해 만난 많은 분들과 지식뿐 아니라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제가 학회로부터 받았던 도움과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콩팥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의료와 연구 환경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대한신장학회는 학문적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장학은 환자의 삶과 오랜 시간 함께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에서부터 투석과 신장이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때로는 긴 시간 동안 환자와 가족의 곁을 지키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합니다. 그 과정에서 쌓이는 신뢰와 책임이야말로 신장학이 가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흘리는 땀과 노력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학회의 힘이며, 국민의 콩팥 건강을 지켜가는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진료 현장에서 애쓰시는 회원들, 지역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시는 회원들, 그리고 이제 신장학의 길을 시작하는 젊은 회원들까지 모두가 대한신장학회의 소중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고 나누며, 세대와 지역을 넘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회원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신장학에서 꿈과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 회원들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 따뜻하게 전해지고, 젊은 회원들의 새로운 생각과 열정이 다시 학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후배

들이 신장학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학회 안에서 좋은 스승과 동료를 만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신장학회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학문적 성과와 국제적 성장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학회 및 연구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회원들의 뛰어난 연구와 임상 경험이 세계 신장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학회의 진정한 발전은 규모나 성과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학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학회의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가 후배의 손을 잡아주고, 동료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다른 생각에도 귀 기울일 때 우리 학회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앞에서 이끌기보다는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를 이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과 집행부, 여러 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학회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전해주어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소중히 이어가면서도 변화에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자부심과 따뜻함을 주고, 환자와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며, 젊은 세대에게는 꿈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대한신장학회 제42대 회장

이 식 올림

Section 01

신임 이사진 명단

회장
이 식 전북의대

부회장
임범진 연세의대
김상욱 광명수내과의원

감사
이동원 부산의대

이사장
최범순 가톨릭의대

총무이사
정성진 가톨릭의대

부총무이사
반태현 가톨릭의대
신정호 중앙의대
양지현 성균관의대

학술이사
김세중 서울의대

대외협력이사
박정탁 연세의대
배은희 전남의대

협연이사
오세원 고려의대

수련교육이사
정병하 가톨릭의대
이하정 서울의대

진료지침이사
고은실 가톨릭의대

등록이사
황현석 경희의대
조장희 경북의대

보험법제이사
양재원 연세대원주의대
최대은 충남의대
유동은 연세유(U)내과의원

재무이사
최훈영 연세의대

윤리이사
정경환 경희의대
장동석 장동석내과의원

홍보이사
황원민 건양의대
이동형 범일연세내과의원

투석이사
길효욱 순천향의대
김좌경 한림의대
이재원 G샘병원

재난대응이사
이영기 한림의대
오현호 상계맑은내과의원

사회공헌이사
장제현 가천의대

정책이사
이정표 서울의대

일반이사
이소영 CHA의대
김일영 부산의대
조아진 건국의대
이현경 중앙의대
이신아 이화의대

KRCP편집위원장
유태현 연세의대

공로상



강신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
뜻깊은 대한신장학회의 공로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신장학에 첫발을 디뎠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은, 학문적 탐구의 즐거움이자 환자들과 함께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에서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그리고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렸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분야는 당뇨병콩팥병으로, 환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받게 된 이 영광스러운 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신장학의 기틀을 세우고 길을 열어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들, 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에게 귀감이 되어준 동료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믿고 따라와 준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여러분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힘들고 고된 의학자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수십 년간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회로 도약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역사에 작은 돌 하나를 얹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는 8월, 정년으로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학을 향한 저의 관심과 열정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후학들이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 신장학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상을 수여해 주신 대한신장학회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상



이은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장내과

2026년 대한신장학회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대병원 전공의 시절 윤견일 교수님을 따라 처음 신장학회에 발을 디딘 뒤, 2006년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던 감격이 아직 선명한데, 20년이 지나 다시 학술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처음 기초연구를 접한 것은 전임의 1년 차 때였습니다. 이희발 교수님 연구팀에서 당뇨병 쥐를 이용해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억제제의 당뇨병콩팥병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동물실험에 참여했으며, 박민선 교수님과는 복막투석 중 포도당 이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논문을 수행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동위원소 실험을 해야 했기에, 무더운 여름날 납가운을 입고 hyperglycemic glucose clamp 실험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교수 임용이 어려워져 미국 시애틀로 연수를 떠나 Abrass 교수님에게 연구 계획서 작성법을 배우고 Juvenile Diabetes Research Foundation fellowship grant를 받아 당뇨병콩팥병에서 podocyte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홍세용 교수님의 도움으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기초 실험실을 마련하고, 국제신장학회(ISN) fellowship을 받아 시카고에서 Chen 교수님과 연구하며 임상과 기초를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당뇨병콩팥병을 비롯한 난치성 콩팥병의 발생과 진행을 이해하고, 치료 및 예방하는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현재는 임상 코호트, 동물모델, 세포실험을 연계하여 환자에서 시작된 질문을 실험실에서 풀고 다시 환자에게 돌려주는 중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isease progression을 넘어 remission과 reversal까지 가능한 치료 전략을 찾고,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젊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5년 6개월의 긴 전임의 과정을 보내며,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최선이 아닌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곁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준 남편과 두 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구와 진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기에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과 동료, 제자들, 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구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더 좋은 연구를 이어가라는 뜻으로 학술상을 주신 대한신장학회와 모든 회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술상



정병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대한신장학회(KSN) 학술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느낍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해 온 연구팀 전체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다양한 콩팥 질환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중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콩팥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콩팥병 모델링 및 치료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과제 지원을 통해 파브리병 신약 개발 연구 및 만성 콩팥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일환으로 줄기세포 유래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6년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의 핵심연구 과제에 선정되어 콩팥 오가노이드 시스템을 활용한 이식 거부반응 모델링 및 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고, 지금도 스스로 많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스승님이신 양철우 교수님에게 가장 감사드리고,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미라 교수님, 연구실의 임선우, 신유진 박사님,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 주는 이한비, 민지원 교수를 비롯한 후배 교수들, 연구소의 궂은 살림을 도맡아 해주는 서영화 선생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진 1] 장기이식연구소 구성원 단체 사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딸 예나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KSN 학술상 수상은 환자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경책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환자들과 학문을 이어주는 진실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연구자상



김형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젊은 연구자의 영광스러운 수상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대한신장학회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분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전공의 시절, 강신욱 교수님을 찾아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모호한 인생 목표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는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에 신장내과를 선택하는 것이 inferior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짧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신장내과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는데, 12년 만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강신욱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 연구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공중보건의사에게 한번 해 보자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한승혁 지도교수님께도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유태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연구자가 아니기에, 신장내과 연구자로서 한 명의 몫을 온전히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은 선배 교수님들의 임상연구에 열심히 참여하며 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고, 중개연구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의 연구들을 겨우 이어 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마주하는 환자들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저만의 독창적인 연구 분야를 조금씩 만들어 가 보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 신장학 연구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명지병원 신장내과 백송인 교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 후 집 한 편에 동네 이름을 딴 '까치마을 신장질환 연구소' 심볼을 붙여 놓고 열심히 연구해 보자고 둘이 다짐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신장내과 의사로 훌륭하게 제 몫을 하고, 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잘 지내고 있으니 새삼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ction 01

KSN 2026 수상자 명단

공로상

강신욱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학술상

이은영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정병하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젊은 연구자상

김형우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KRCP 우수논문상 기초

최우수

장소영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김서린 부산의대 내과학교실

KRCP 우수논문상 임상

최우수

박우영 계명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김일영 부산의대 내과학교실

KRCP 최고기여상

최우수

김세중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송상헌 부산의대 내과학교실

황원민 건양의대 내과학교실

한승혁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KRCP 최고심사위원상

최우수

정찬영 울산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김창성 전남의대 내과학교실

김효진 고려의대 내과학교실

현영율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연구자상 전공의·전임의 대상

고정훈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김민규 경북의대 내과학교실

김지영 중앙의대 내과학교실

박거늘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배소현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신현정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유은미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이정연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이진선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이호정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장윤주 삼성서울병원

장진하 한림의대 내과학교실

우수 연구자상 개원의·봉직의 대상

곽상혁 곽상혁내과의원

구상건 생명선의원

신장학연구재단(K-NRF) 연구비

FME 연구비

박세훈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신장학 발전에 공헌할 연구과제 지원(투석) 연구비

황현석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종근당 신진연구비

고알아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신진연구비

권진경 계명의대 내과학교실

김무준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문영윤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박병화 인제의대 내과학교실

박창민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신진병리연구비

정민선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우수초록상

지종현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진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현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윤소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박주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준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유은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n Shen The 1st Affiliated Hospital of Dalian Medical University, China

Emilia Kieckhöfer University of Cologne, Germany

우수포스터상

김효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창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한승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황석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덕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임지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민상 서울대학교병원

이용우 충남대학교병원

김지영 중앙대학교병원

KSN 2026, 질문으로 내일을 빚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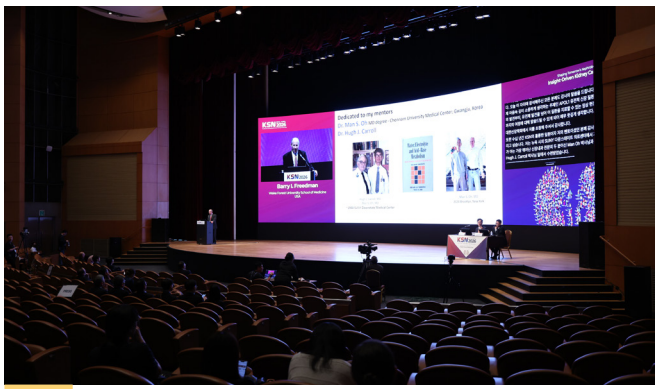
강은정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내과

미래를 묻는 학술대회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은 '무엇을 더 담을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가장 필요한가'를 고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논문과 치료제가 쉼 없이 등장하고, 신장학의 범위가 인접 분야와 빠르게 맞닿는 상황에서 모든 주제를 한 학회 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에 남겨야 할 것은 정보의 총량이 아니라, 참가자가 진료실과 연구실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생각하게 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차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 KSN 2026은 "Shaping Tomorrow's Nephrology: Insight-Driven Kidney Care"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Shaping'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단순히 전망한다는 뜻보다, 오늘의 통찰과 선택을 통해 그 모습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학술위원회는 이 문장을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이 새롭다는 사실만 소개하기보다 그것이 환자 진료를 어떻게 바꾸는지, 어떤 한계와 책임을 동반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학술대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 학회에는 국내 1,971명과 국외 284명을 포함하여 총 2,255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커진 규모에 맞추어 Plenary Lecture는 보다 넓은 Auditorium에서 진행되었고, 주요 강연을 함께 듣고 토론하려는 참가자들의 열기로 학회장의 분위기도 한층 활기를 띠었습니다. 또한



[사진 1] KSN 2026 학회장 모습

올해 처음으로 AI 기반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국내외 참가자들이 주요 강연과 토론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모의 확대가 단순히 숫자의 증가에 머물지 않고 학술적 경험의 폭과 접근성을 함께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KSN 2026의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질환보다 환자를 보다

올해 프로그램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변화 중 하나는 신장질환을 고립된 장기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Plenary Lecture에서 다룬 Cardiovascular-Kidney-Metabolic(CKM) Syndrome은 이러한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신기능 저하, 심혈관질환, 당뇨병과 비만은 서로 떨어진 동반질환이 아니라 같은 환자의 위험을 함께 구성하며, 치료 역시 분절된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예후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CKM 세션에서는 비당뇨병 및 제1형 당뇨병, 만성콩팥병

에서의 새로운 근거와 finerenone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며, 근거의 변화가 실제 치료 순서와 환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구체질환, 만성콩팥병, 투석과 이식 세션에도 이어졌습니다. 단백뇨성 사구체질환에서의 비만과 대사 이상, 심혈관 위험 평가, 고령 환자의 투석과 보존적 치료, assisted PD, 환자와 보호자의 소진, 영양과 근감소증은 모두 질환명이나 검사 수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과의 공동 심포지엄도 '신장내과의 영역을 넓힌다'는 선언보다는, 한 환자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올해의 프로그램은 어떤 장기를 치료할 것인가 보다 어떤 환자를 돌보고 있는가를 먼저 묻게 하였습니다.

국제 공동 프로그램도 같은 원칙 아래 구성하였습니다. KSN-TSN-JSDT 공동 심포지엄, KDIGO-KSN 및 KSN-ISPD 공동 심포지엄, ESPN과 Asian Nephrology Forum 등은 같은 질환과 치료를 두고도 국가별 환자 특성, 의료자원, 보험제도와 진료 관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비교하고,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소개하거나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서로의 해법을 검토하는 장이었습니다. 국제화의 의미는 국경을 넘은 지식의 이동 자체보다, 익숙한 판단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데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능성과 책임을 함께

미래를 다룬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Plenary Lecture의 "APOL1: From Genome Discovery to Clinical Practice"는 유전적 발견이 질병 기전의 이해를 넘어 위험 예측과 임상 적용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전체, 다중오믹스, 병리와 전사체의 통합, 단일세포 및 공간전사체 연구는 정밀신장학이 더 이상 추상적인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신장이식 세션에서도 새로운 바이오마커, 거부반응과 이식신 소실을 예측하는 기계학습, 개인별 면역억제 전략을 통해 같은 진단을 가진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 Plenary Lecture의 이종이식은 과학적 가능성이 커질수록 질문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장기 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경로라는 기대와 함께 면역학적·감염학적 위험, 장기적인 안전성, 윤리와 제도,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연구와 진료의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료윤리의 관점, 보건의료 AI 도입의 시사점, 신장내과 의사의 데이터 책임을 별도의 윤리교육에서 논의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정확도만큼 편향, 개인정보, 설명 가능성과 책임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KSN 2026이 말한 미래는 기술이 자동으로 가져다주는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과 책임을 함께 선택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현장으로 옮기다

학술대회에서 들은 내용이 실제 진료를 바꾸려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회가 끝난 뒤부터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PG Education은 복막투석 처방과 합병증, 체액·전해질 이상, 급성콩팥손상, 이식 환자의 실무적 문제를 증례와 의사결정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논쟁이 있는 주제에서는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서로 다른 근거와 임상 상황을 비교하도록 하였고, 일상 진료에서 자주 만나지만 판단이 어려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POCUS hands-on session은 혈관접근로 초음파, 신장·폐·IVC 초음파, 신장생검과 영구도관 삽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식을 손의 경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투석 전문의 과정과 간호사 과정에서는 투석실의 실제 관리, 혈관접근로, 응급상황, 환자교육을 직역과 역할에 맞게 다루었습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세션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제도 변화, 현장 적용과 질의응답을 한 자리에서 연결하였습니다. 학회가 최신 근거를 소개하는 곳을 넘어, 근거가 현장에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기술·교육·제도를 함께 다루는 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화한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자유연제와 KSN Cooperative Study 역시 이미 정리된 지식을 전달하는 세션과는 다른 긴장을 더했습니다. 알포트증후군의 국내 현황, 항암치료 후 신장 합병증, 다기관 사구체질환 코호트와 임상정보의 연계, 한국인 만성콩팥병 환자의 나트륨 배설량 추정 등 국내 연구자들이 직접 만든 근거가 공유되었습니다. 완성된 결과뿐 아니라 연구의 한계와 다음 단계가 토론되는 과정은 '어떤 근거를 기다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환자에게 필요한 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묻게 하였습니다.



[사진 2] KSN 2026 진행 모습

환자의 목소리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올해 특히 인상적이었던 변화는 환자와 당사자가 학술대회의 청중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무대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Patient Advocacy Session은 전통적인 강의 대신 토크쇼로 진행되었고, 영화 「슈가」에 출연한 당사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단체, 의료진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계자가 함께 질병을 살아가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의료진에게 익숙한 수치와 치료가 환자의 일상에서는 학교와 직장, 가족, 불안과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당사자의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환자 중심 진료는 환자를 위한 결정을 넘어, 환자가 학술적 논의의 주체가 되고 그 경험이 진료와 연구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과정임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Green Nephrology 세션에서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탄소발자국, 물과 에너지 사용,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재난대응위원회 세션에서는 전쟁 상황에서



[사진 3] KSN 2026 현장 모습

의 협력, 지진 대비, 기후재난과 폭염이 신장질환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학회의 대응 체계를 논의하였습니다. 환경과 재난은 신장학의 '주변 주제'가 아니라 치료의 지속가능성과 환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통상적인 진료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 때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오늘의 치료가 다음 세대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까지 묻는 순간 신장학의 책임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해의 준비를 돌아보며

지난해 처음 학술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때에는 학술대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간과 조율을 통해 만들어지는지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인 흐름과 준비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참여했지만, 결코 더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와 진료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주제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했고, 각 분야의 의견과 제한된 시간표를 조정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프로그램 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목과 시간만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학술위원회 이사님이신 김동기 교수님,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회, 국제학회 및 유관 학회가 나눈 수많은 제안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연자와 좌장의 일정, 유사 주제의 중복, 각 세션의 성격을 하나씩 조율하며, 좋은 프로그램은 새로운 주제를 많이 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 의견이 실제 학회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판단과 수고를 보태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보다 다음 질문

KSN 2026은 미래의 신장학에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려 한 학회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장기별로 나누지 않는 진료, 정밀의학과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 새로운 근거를 현장에 옮기는 교육과 제도, 환자의 목소리와 환경·재난까지 포함하는 신장학의 역할을 함께 질문한 시간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제시된 답들은 각자의 환자와 연구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질문을 공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의 변화를 시작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해 동안 학술위원회 간사로 KSN을 준비할 기회를 얻은 것은 제게 큰 배움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지혜를 나누어 주신 모든 선생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회를 운영해 주신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회장을 찾아 강의를 듣고 질문하며 토론을 완성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SN 2026에서 각자가 발견한 질문이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새로운 판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신장학을 실제로 빚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유럽신장학회(ERA) 2026 참관기



길효욱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장내과

지난 6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63회 European Renal Association(ERA) Congress에 참석했습니다. ERA는 세계 신장학 분야의 최신 연구와 임상시험 결과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학회입니다. 올해 학회의 공식 슬로건은 "Challenge Your Thinking"였습니다. 익숙한 지식과 기존의 진료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근거와 기술을 통해 신장학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학회장에서는 이러한 슬로건에 걸맞게 새로운 치료제와 대규모 임상시험,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소개되었으며, 신장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럽 출장은 오랜만의 장거리 해외학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낯선 도시에서 길을 찾고, 교통편을 알아보고, 식당을 찾는 일까지 모두 부담으로 느껴졌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Google Maps와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대부분의 일정이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항공편 게이트 확인, 공항과 호텔 이동, 버스와 기차 이용, 식당 검색은 물론 간단한 번역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높아진 환율과 영국의 물가는 장거리 해외학회의 부담을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식사와 숙박비를 결제할 때마다 예상보다 큰 금액에 놀라기도 했지만, 학회 기간이라 평소보다 가격이 오른 거라는 말에 약간의 수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회 기간 동안 작은 스마트폰을 이용했지만, AI 기술이 연구뿐 아니라 해외학회 참석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출장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글래스고는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영화 Braveheart에서 보았던 멜 깁슨 때문인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거칠고 강인할 것이라는 이미지와 위스키로 대표되는 문화 때문인지, 방문 전에는 왠지 다소 무뚝뚝하고 남성적인 분위기의 도시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도착한 첫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밤늦게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내릴 정류장뿐 아니라 숙소까지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낯선 도시에 늦은 시간 도착해 조금 긴장했던 터라 이러한 작은 배려가 더욱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1]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도시 전경

스코틀랜드 특유의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맑았다가, 비

가 내리고, 다시 햇볕이 비치는 등 매우 변화무쌍했습니다. “하루에 사계절을 경험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실제로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달리 사람들의 친절함은 한결같았고, 여행객을 배려하는 문화 덕분에 글래스고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도시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회 일정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를 방문했습니다. 의사에게 ‘Glasgow’라는 이름은 도시보다도 Glasgow Coma Scale(GCS)로 먼저 익숙한 이름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의식수준 평가 방법이 이곳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전부터 한 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교는 1451년에 설립된 오래된 대학답게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오랜 역사와 전통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고딕 양식의 오래된 건물과 회랑을 걷다 보니 현대적인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구경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사용했던 Glasgow Coma Scale이 시작된 도시와 대학을 직접 걷고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사진 2] 글래스고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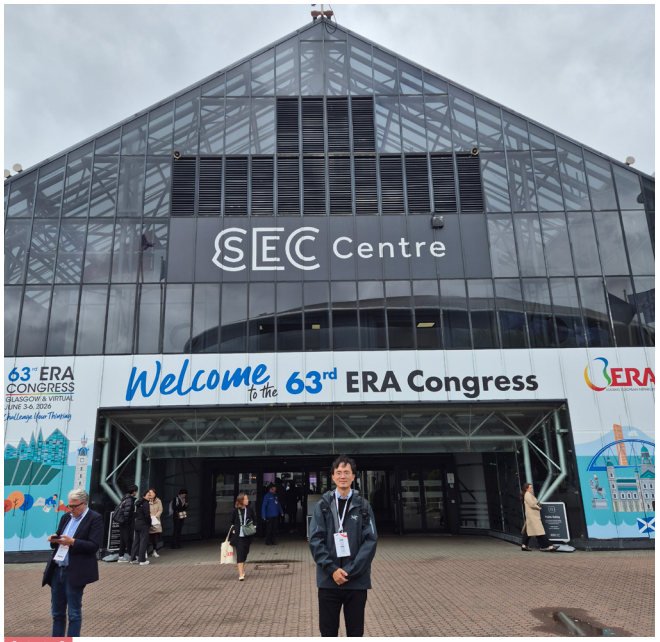
캠퍼스 내 박물관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이라 상당히 큰 규모의 의학 관련 전시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소박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것과는 달리, 학회가 열린 도시의 대학을 직접 찾아가 그 역사와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해외학회에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음식은 먹을 것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출발 전부터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방문한 해산물 식당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지만,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fish and chips는 개인적으로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명한 음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입맛에도 맞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학회 기간 중에는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된 식당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기대가 컸지만 생각만큼 특별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큰 기대 없이 찾은 작은 식당이 더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은 결국 개인의 취향과 익숙한 식문화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해외학회 기간에 익숙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글래스고에 예상보다 많은 한식당이 있다는 점도 놀라웠고, 멀리 스코틀랜드에서도 한국 음식과 K-Culture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간판은 한식당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음식의 맛과 메뉴가 기대와 다소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한식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반가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과 현지에서 받아들여지고 변형되는 한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 한식당을 찾는 경우라면 방문 전에 Google 리뷰 등을 통해 실제 메뉴와 음식 사진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실망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Late-breaking Clinical Trial 세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가 모두 종료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ERA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interim analysis)가 메인 세션에서 활발하게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시작 전부터 강연장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사진 3] ERA 2026 학회장과 길효욱 교수



[사진 4] FIND-CKD trial 발표 장면

정도로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 신장질환에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신장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대규모 임상시험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빠르게 실제 진료 현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연구 가운데 하나는 finerenone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는 비당뇨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도 우수한 신장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단백뇨 감소와 신기능 저하 억제 효과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성콩팥병 치료는 질환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SGLT2 억제제에 이어 비스테로이드성 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MRA)까지 더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신장과 심혈관을 보호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이어 발표되는 긍정적인 대규모 임상시험들은 신장내과 의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료지침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 치료 분야의 변화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ACE 억제제, ARB, 칼슘통로차단제, 이뇨제 등 기존 약제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던 고혈압 분야에 최근 새로운 작용기전의 약제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endothelin receptor antagonist인 aprocitentan과 aldosterone synthase inhibitor 계열의 약제들이 최근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혈압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는 환자의 병태생리에 따라 다양한 기전의 약제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맞춤형 혈압 치료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및 신장 보호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학회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신장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만성콩팥병 치료에서는 혈압과 단백뇨를 조절하고 신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장질환을 당뇨병, 비만, 심부전 및 심혈관질환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질환으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SGLT2 억제제를 시작으로 finerenone과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약제가 혈당이나 혈압과 같은 특정 지표만을 개선하는 것

이 아니라 신장과 심혈관계를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장내과 의사가 환자의 심혈관 및 대사 위험을 함께 평가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세션에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신장내과의 진료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제가 수행한 연구를 e-poster로 발표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연구 주제는 만성콩팥병에서 미세아교세포(microglia)와 별아교세포(astrocyte)의 변화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긴장도 되었지만, 여러 나라 연구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특히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신장질환이 아니라 뇌와 심혈관계를 포함한 전신질환으로 이해하려는 최근 연구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연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5] ERA 학회장 내 전경

이번 ERA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신장학이 지금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약제가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간격도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장내과가 변화가 더딘 분야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양한 혁신 치료제가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는 분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구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AI는 논문 검색과 번역을 넘어 연구자의 해외 활동과 국제 협력까지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앞으로 연구자들에게 AI 활용 능력 또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래스고에서의 며칠은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신장학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학술 토론과 활발한 임상연구 발표를 통해 신장학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고, 국제학회가 최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연구자 간 협력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중요한 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ERA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은 앞으로의 연구와 진료를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신장학회(Japanese Society of Nephrology, JSN) 소개



이지영
건국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가까운 이웃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한·일 신장학 교류

국제 학술교류는 수사가 아니라 진료와 연구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입니다. 특히 각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신장학회인 대한신장학회(Korean Society of Nephrology, KSN)와 일본신장학회(Japanese Society of Nephrology, JSN)는 유사한 질병 부담과 의료체계를 공유해 서로의 연구와 임상 경험이 참고가 되는 관계입니다. 교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협력체, 국제 학회, 양국 학회 간 직접 교류라는 세 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진 1] KSN 2026 Asian Pacific Nephrology Forum 단체사진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무대

두 학회가 만나는 장은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sian Pacific Society of Nephrology, APSN)와 그 학술대회인 APCN(Asian Pacific Congress of Nephrology)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학술대회와 위원회·교육 프로그램에 양국 연자가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세계신장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Nephrology, ISN) 역시 중요한 통로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ISN 서태평양 지역 활동을 함께 이끌며 역내 신장학 발전을 돕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사진 2] KSN 2026 Presidential dinner

공통의 질병, 공통의 연구 주제

한·일 교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두 나라가 말 그대로 '비슷한 환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인이라는 공통의 유전적 배경에 쌀 중심의 식문화와 생활습관까지 닮아 있어, 질병의 발현 양상과 위험 요인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IgA 신병증(IgA nephropathy)은 동아시아에서 유병률이 높은 대표적 사구체질환으로, 서구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일수록 서로의 근거가 더 요긴해집니다.

당뇨병성 신장병,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관리, 신대체요법(Renal Replacement Therapy)의 운영, 신약의 임상 적용까지 공유할 주제는 방대합니다. 오랜 기간 전국 투석 환자 등록 자료를 축적해 온 일본의 장기 예후 데이터는 한국에도 참고가 되며, 고령화 속에서 투석 시작 및 중단 시점과 보존적 치료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두 나라가 함께 마주한 물음입니다.



[사진 3] KSN 2026 Asian Pacific Nephrology Forum 진행 모습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교류

교류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는 결국 사람입니다. 두 학회는 2021년 양해각서(MOU)를 맺어 교류의 틀을 다졌고, 이듬해 첫 공동 심포지엄이 열린 이후 서로의 학술대회에 상대국 연자를 초청하는 조인트 심포지엄(joint symposium)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3년 일본신장학회 학술대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병원 이정표 교수가 공동 좌장을, 고신대복음병원 신호식 교수와 분당차병원 이유호 교수가 초청 연자를 맡았습니다. 2026년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홍콩·한국·일본·호주가 함께한 공동 심포지엄 'Asian Pacific Nephrology Forum'이 열렸습니다. 각국의 신장연구 레지스트리와 코호트를 소개하고 운영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표로 시작된 만남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로 이어져 왔습니다.

학술 일정 밖의 자리도 소중했습니다. 세션이 끝난 뒤의 만찬과 친교 모임에서는 진료 현장의 고민이나 시행착오처럼 논문에 실리지 않는 경험이 오갔습니다. 관계는 한결 가까워졌고, 쌓인 신뢰는 다음 공동 연구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젊은 신장학자(young nephrologist)들의 만남은 다음 세대가 국경을 넘어 협업할 토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토대는 탄탄하지만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에 보조를 맞추는 일이 그중 하나입니다. 보체 억제제, B세포 표적 치료, APRIL 경로 치료제 등 사구체질환 치료의 지평이 빠르게 바뀌는 지금, 서로의 허가·급여 경험과 실사용 데이터를 교환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레지스트리의 항목과 정의를 맞추어 자료를 견줄 수 있게 하는 일, 공동 연구를 동아시아로 넓히는 일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언어의 벽도 과제입니다. 일본신장학회 학술대회는 발표와 토론이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어, 일본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한국 등 외국 의사에게는 참여의 문턱이 높습니다. 기초연구가 중시되는 점도 임상연구 비중이 큰 우리와 다릅니다. 영어 세션이 넓어지고 서로의 강점을 채워 간다면 교류는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결국 국제 학술교류의 본질은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두 학회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양국 신장 환자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 신장학의 다음 장을 기대해 봅니다.

C3G 및 Primary IC-MPGN의 새로운 표적 치료제: Pegcetacoplan



이하은
예수병원 신장내과

C3 사구체병증(Complement 3 glomerulopathy, C3G)과 원발성 면역복합체 막증식사구체신염(primary immune-complex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primary IC-MPGN)은 보체계의 조절 이상으로 발생하는 희귀 사구체질환이다. C3G는 주로 보체 대체경로(alternative pathway)의 과활성화에 의해, primary IC-MPGN은 대체경로와 고전경로(classical pathway) 모두의 관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질환 모두 조절되지 않는 C3 활성화로 인해 C3 분해산물이 사구체에 과도하게 침착되고, 이로 인한 염증과 신손상이 진행된다.[1,2]

예후는 매우 불량하다. 진단 후 10년 이내에 최대 50%의 환자가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여 투석 또는 신이식이 필요하다.[1] 그러나 신이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C3G는 이식 후 사구체질환 중 재발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 하나로, 연구에 따라 이식 후 재발률이 최대 89%까지 보고되며, 재발은 이식신 소실의 주요 원인이 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치료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enin-angiotensin-aldosterone system) 억제제와 같은 보존적 치료 및 스테로이드, mycophenolate mofetil(MMF) 등 면역억제제를 허가외(off-label)로 사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인 보체 조절 이상을 표적하지 못하고, 유효성에 대한 확고한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4,5] 따라서 질환의 병태생리 핵심인 보체 활성화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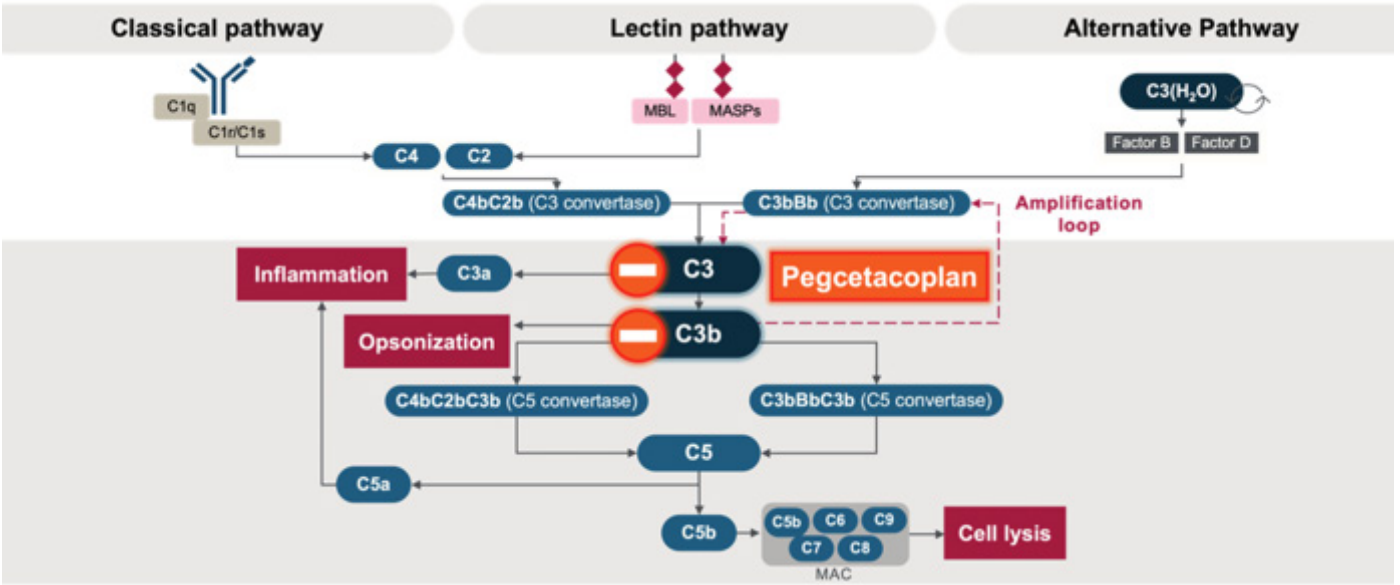
작용기전

보체계는 선천면역의 핵심 구성 요소로, 고전·렉틴·대체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활성화된다. 이 세 경로는 모두 C3 전환효소(C3 convertase)를 형성하여 중심 단백인 C3를 C3a와 C3b로 분해하는 지점에서 수렴한다. C3b는 표적 표면에 침착되어 C3 전환효소 및 하류의 C5 전환효소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막공격복합체(membrane attack complex, C5b-9)의 생성으로 이어진다.[1]

Pegcetacoplan은 compstatin 계열의 이중 PEG화(PEGylated) 고리형 펩타이드로, 보체 단백 C3와 그 활성화 산물인 C3b에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C3의 분해를 막고, C3 사구체 침착을 감소시키며, C5 전환효소(C5 convertase)의 활성과 이에 따른 C5b-9 형성을 억제한다. 즉, C5 억제제(eculizumab, ravulizumab)가 보체 종말경로만을 차단하는 것과 달리, pegcetacoplan은 보체 연쇄반응의 근위부(C3 수준)에서 작용하여 C3b 매개 옵소닌화와 하류 종말 보체 활성화를 동시에 조절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그림 1].[6]

임상시험 결과

VALIANT 연구는 C3G 또는 primary IC-MPGN을 가진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 124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이중맹검·위약대조·다기관 제3상 임상시험으로, 자가신장 질환 환자와 이식 후 재발한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다.[3] 환자들은 1:1로 무작위 배정되어 pegcetacoplan(최대 1,080 mg 피하 주사, 주 2회) 또는 위약을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 추가하여 26주간 투여받았으며, 이후 공개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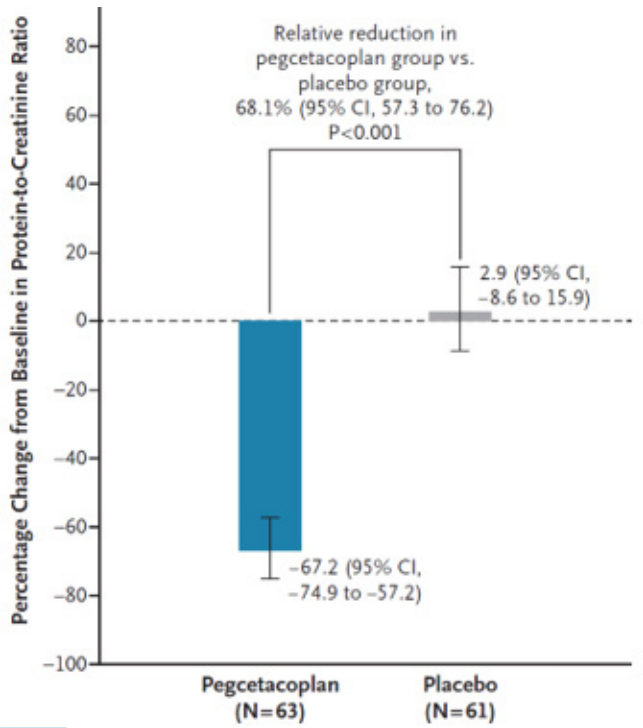


[그림 1] Mechanism of action of pegcetacoplan

기(open-label period)를 통해 52주까지 추적되었다. 일차 평가변수는 26주 시점의 로그 변환 요단백/크레아티닌비(urine protein-to-creatinine ratio, UPCR)의 기저치 대비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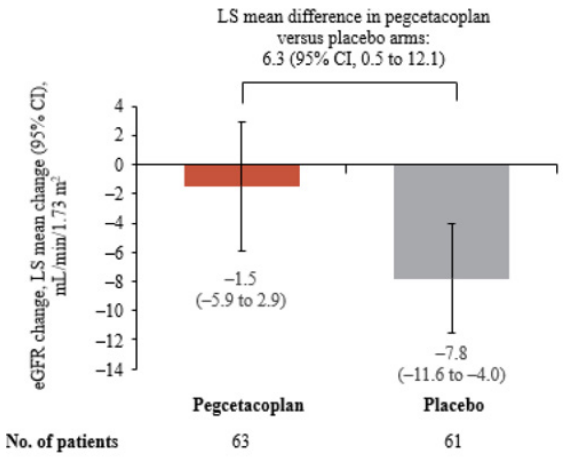
연구는 일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였다. 26주 시점에 pegcetacoplan군은 위약군 대비 단백뇨를 68%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001). 주요 이차 평가변수에서도 일관된 효과가 확인되었다. UPCR이 5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은 pegcetacoplan군 60.3% 대 위약군 4.9%로 pegcetacoplan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신기능 또한 안정화되어, eGFR은 위약군 대비 +6.3 mL/min/1.73 m²의 차이를 보였다(95% CI 0.5–12.1). 또한 C3 염색 강도가 기저치 대비 2단계 이상 감소한 환자는 pegcetacoplan군 74.3%, 위약군 11.8%였으며(RR 6.2; 95% CI 2.4–15.9), pegcetacoplan군의 71%에서 C3 염색 강도가 0에 도달하였다[그림 2, 3, 4]. 약력학적으로는 pegcetacoplan군에서 치료 후 혈청 C3 농도는 상승하고 혈장 soluble C5b-9 농도는 감소하였다.

Pegcetacoplan의 효과는 C3G와 primary IC-MPGN, 성인과 청소년, 자가신장과 이식 후 재발 등 사전 정의된 모든 하위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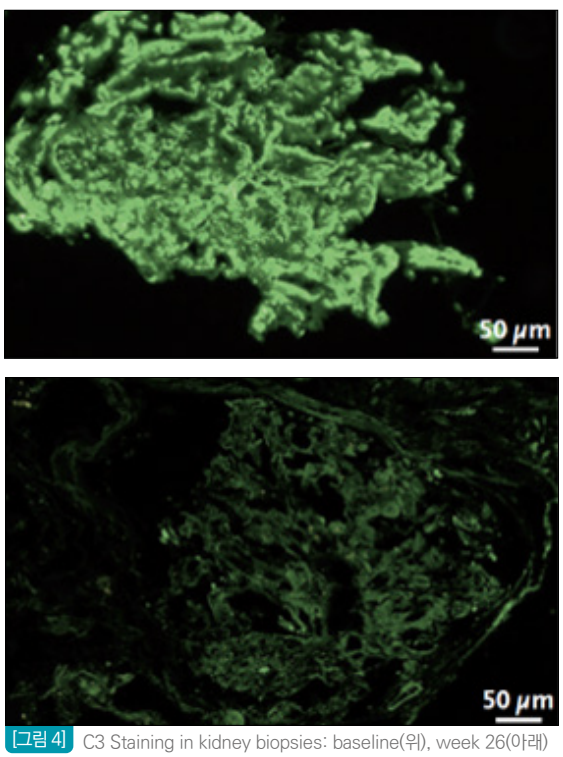


[그림 2] Change in urinary protein-to-creatinine ratio at week 26

특히 이식 후 재발 환자군(n=9)에서도 pegcetacoplan군(n=5)이 위약군(n=4) 대비 단백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64.9%, P=0.024). 기존 코호트 연구에서 단백뇨의 50% 이상 감소가 신부전 위험의 유의한 저하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VALIANT에서 관찰된 전 하위그룹에 걸친 단백뇨 감소와 eGFR 안정화는 장기적으로 신부전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3] Change in eGFR from baseline to week 26



[그림 4] C3 Staining in kidney biopsies: baseline(위), week 26(아래)

안전성 측면에서, 치료 기간 중 이상반응 발생률(pegcetacoplan군 84%, 위약군 93%)과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률(양군 각 10%)은 두 군에서 유사하였다. 감염에 의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pegcetacoplan군 3명(5%, COVID-19 폐렴·인플루엔자·폐렴 각 1명)과 위약군 1명(2%, 바이러스 감염)에서 나타났다. 사망은 1건으로, pegcetacoplan군 환자가 COVID-19 폐렴에 동반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막형성 세균(encapsulated bacteria)에 의한 중대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식신 거부반응이나 소실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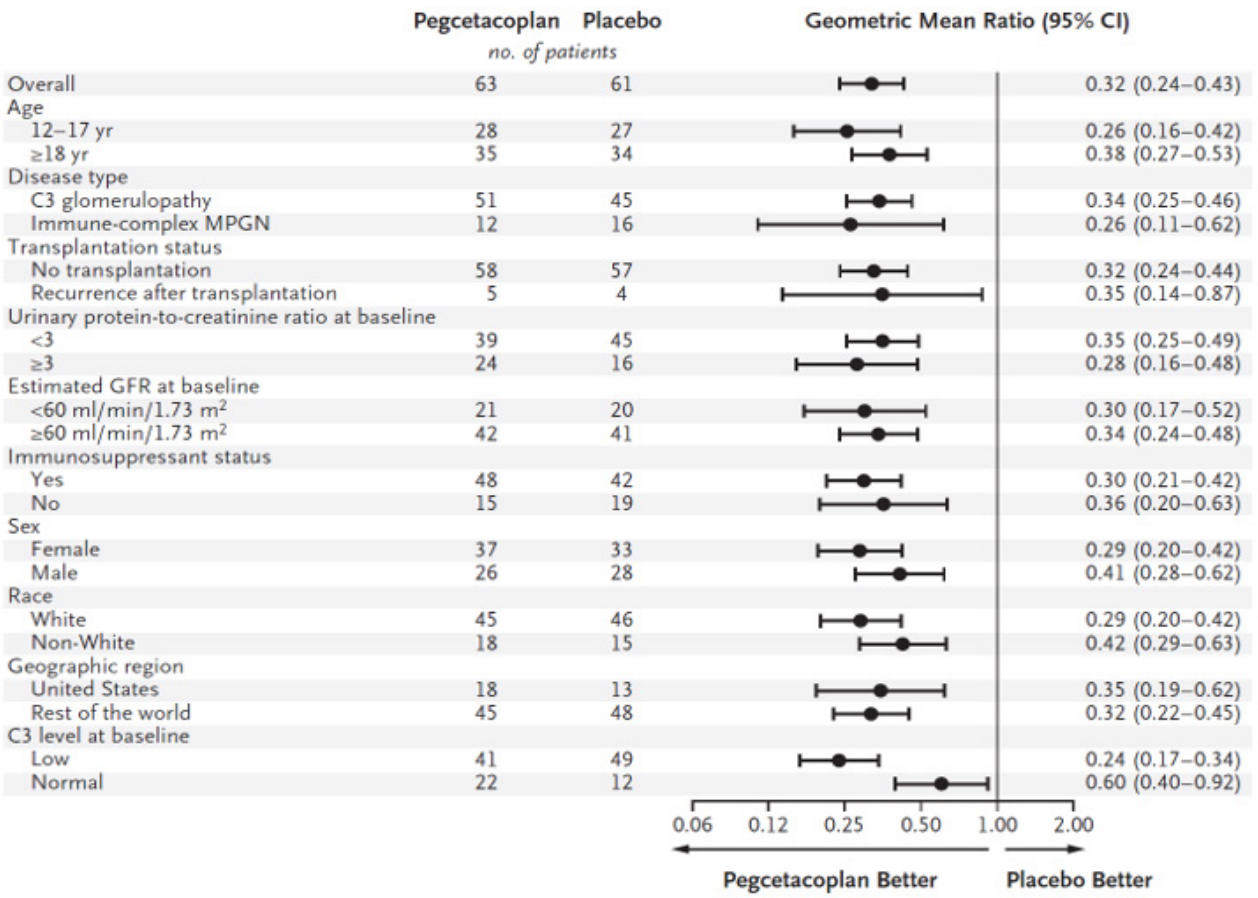
용법 및 용량

Pegcetacoplan(엠파벨리주)은 국내에서 2024년 4월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 치료제로 처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25년 11월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C3G 또는 primary IC-MPGN 치료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받았다. 이 약은 피하 주사하며, 최대 20 mL까지 사용 가능한 주입 펌프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 2회(1일차와 4일차) 투여한다. 성인은 1,080 mg을 주 2회 피하 투여하고, 청소년(12세 이상)은 체중에 따라 용량을 결정한다. 보체 근위부를 억제하는 약물의 특성상 피막형성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 투여 시작 최소 2주 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7] 현재 PNH 적응증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C3G 및 primary IC-MPGN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론

C3G와 primary IC-MPGN은 그동안 근거가 확립된 질환 조절 치료제가 부재하여 상당수 환자가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고, 이식 후에도 높은 재발률로 이식신 소실 위험이 높아 미충족 요구가 큰 질환이었다.[1,3]

Pegcetacoplan은 C3 수준의 보체 과활성화를 직접 표적하는 최초의 C3 억제제로서, 대규모 제3상 VALIANT 연구를 통해 단백뇨 감소, 신기능 안정화, C3 침착 소실이라는 세 가지 핵심 질환 지표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일관된 효과를 입증하였다.[3] 다만 최적의 환자 선정, 치료 시



[그림 5] Subgroup Analysis

작 시점과 지속 기간, 장기 신예후 등에 관한 근거는 향후 장기 추적 및 실제임상근거 연구를 통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5]

Reference

1. Smith RJH, Appel GB, Blom AM, et al. C3 glomerulopathy — understanding a rare complement-driven renal disease. Nat Rev Nephrol. 2019;15(3):129–143.
2. Bomback AS et al. Challenges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mmune Complex–Mediated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and Complement 3 Glomerulopathy. Kidney Int Rep. 2025;10(1):17–28.
3. Fakhouri F, Bomback AS, Ariceta G, et al. Trial of Pegcetacoplan in C3 Glomerulopathy and Immune-Complex MPGN. N Engl J Med. 2025;393(22):2210–2220.
4. Fakhouri F, Le Quintrec M, Frémeaux-Bacchi V. Practical management of C3 glomerulopathy and Ig-mediated MPGN: facts and uncertainties. Kidney Int. 2020;98(5):1135–1148.
5. Caravaca-Fontán F, Bruchfeld A, Moran SM, et al. Pivotal Clinical Trials in C3 Glomerulopathy: answers and remaining uncertainties. Nephrol Dial Transplant. 2026;gfag155.
6. Tarragon Estebanez B, Bomback AS. C3 Glomerulopathy: Novel Treatment Paradigms. Kidney Int Rep. 2024;9(3):569–579.
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 허가사항.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401037

수치 너머의 삶을 읽는 눈: 선배들의 길을 따르며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오영승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서울 강서구 마곡역에 개원한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오영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개원의 선배님들께 이렇게 글로써 인사를 올립니다.
부족한 저의 경험과 소회를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지면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영역을 새로운 전문성으로

군의관 시절 접한 내시경에 매료되어 소화기내과를 전공했고, 종합병원에서 봉직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공의 시절 신장내과를 깊이 있게 접할 기회가 부족했기에, 저에게 신장내과는 늘 비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래 환자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5 mg/dL 이상으로 확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저로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원을 알아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두 시간이 넘도록 백방으로 투석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던 그날 밤의 기억은 제 의사 인생의 이정표를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에 안주하기보다, 정면으로 부딪쳐 약점을 전문성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임의 모집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영역을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바꾸기 위한, 두 번째 임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광야로

전임의 수련 후, 언제든 상의할 수 있었던 대학병원의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새로 투석실을 개설하는 종합병원의 유일한 신장내과 의사로 부임했을 때, 모든 임상적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중압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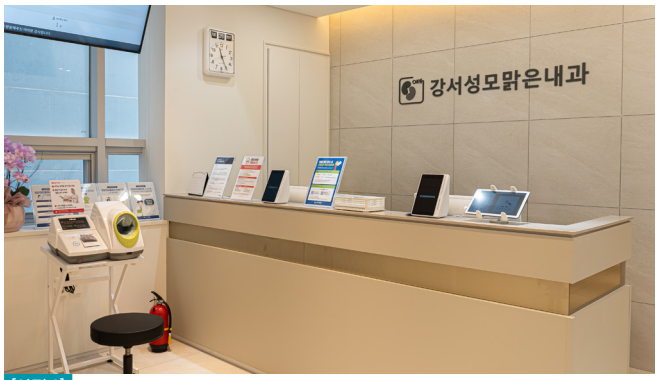


[사진 1]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오영승 원장

한 자릿수 환자로 시작한 인공신장실은 4년 만에 100여 명의 환자가 신뢰하고 찾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령의 복합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개원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우리마저 외면하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진료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들이 치료에 잘 따라주어 큰 문제없이 안정적인 유지 투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투석을 시작한 환자들과는 주치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시던 환자분의 모습

은 임상의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자 책임감으로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진 2]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내부 모습

위기를 거쳐 단단해지는 과정

개원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선배 원장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하루에도 몇 군데씩 업체를 만나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개원 전후로 마주한 현실의 장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치솟는 인건비, 주사기 품절 대란과 같은 공급망 불안정,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변화 예고까지 개원가는 매 순간이 시련이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업체와의 조율부터 예고 없는 직원들의 사직 통보까지, 거센 풍파가 몰아쳤습니다. 고비마다 막막했지만, 저는 좌절하기보다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한 단계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건네주셨던 격려와 조언은 홀로 진료실을 지키는 제게 언제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다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환자들에게서 나옵니다. 투석실 환자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칭찬 글과, 외래 환자들의 진심 어린 리뷰를 마주할 때마다 자신감이 더해집니다. 환자들이 건네는 신뢰야말로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자,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수치 너머의 삶을 개별화하다

인공신장실 환자들은 오랜 유병 기간으로 인해 대개 예민하고, 감정 변화가 격해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예민함 이면에 가려진 두려움과 고단함을 먼저 바라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던 환자라도, 눈을 맞추고 정성을 다해 반복적으로 다가가면 결국 진심을 알아주고 깊은 신뢰를 보내온다는 것을 매일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진 3] 강서성모맑은내과의원 치료실 모습

저희 의원이 지향하는 진료의 핵심은 '환자 맞춤형 개별화 치료'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천편일률적인 이론만을 적용하기보다,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동반 질환, 당일 몸 상태까지 고려하여 최적화된 투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검사 수치의 완성도는 기본으로 갖추되, 환자의 지친 마음까지 돌보는 정서적 돌봄을 결합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선후배 선생님들께서 밤을 지새우며 지켜내신 환자들의 소중한 바통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든든한 보루가 되겠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환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개원가에서 실천해 나갈 소명이자 지향점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와 인연으로 지역사회에 스며들다

연세아레나내과의원



이서영
연세아레나내과의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새로 피어나는 2026년 5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연세아레나내과의원'을 개원한 원장 이서영입니다.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선생님들께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사진 1] 연세아레나내과의원 입구

창동아레나는 2027년 완공 예정으로, K-POP의 중심이자, 도봉구 창동의 랜드마크가 될 공연장입니다. 아레나처럼 지역 주민의 상징적인 내과가 되어, 지역사회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의학과 진료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가까이 실천하고자, 따스한 봄날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도봉구와의 인연은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를 마치고, 강북구 수유역 인근 종합병원에서 봉직의를 지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북, 도봉, 노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내원한 환자분들, 함께 일하던 직원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으며, 지역의 푸근한 정에 녹아들었습니다. 3년간 봉직 생활을 이어가다가, 서로 잘 알고 신뢰를 쌓아온 환자분들과 직원들이 있는 지역에서 나의 병원과 인공신장실을 열어, 직접 운영하며 소신대로 진료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진 2] 연세아레나내과의원 내부 모습

개원을 결심하고, 2025년 12월 말 오후 몇 군데 입지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마음먹기 어렵던 중, 인근 대학병원의 훌륭한 신장내과 교수님과 소중한 인연

이 닿아, 장소를 바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개원을 결심하자마자 단 한 번 입지를 둘러보고, 계약하기까지 전체 기간이 2주가 채 걸리지 않았으니,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이 이끈 듯, 파도 타듯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지 선정은 수월했지만, 개원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물의 계약전력을 증설해야 하는 변수가 나타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고, 효율적인 동선이 가능한 구조를 고민하다가 인테리어 도면을 확정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려, 착공이 늦어져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와 접촉하지 않고 혼자 모든 걸 알아보며 준비했더니, 3~4개월 내내 과부하 상태로 지내서, 정작 개원일에 번아웃이 와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봉직의로 지냈던 병원 신장실 수간호사 선생님과 좋은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믿고 함께해주셨고, 몇몇 환자분도 흔쾌히 따라와 주셔서, 33개의 병상을 갖춘 연세아레나내과의원은 개원 첫날부터 첫 환자를 맞아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진 3] 연세아레나내과의원 치료실 모습

개원 준비 과정은 예상치 못한 고비의 연속이었지만, 사소한 것도 직접 파악하고 결정한 것이 후회를 줄이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개원 4개월 차인 현재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며 바로잡아 나가고 있지만, 계속 고치고 경험하면서 우리 병원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많은 분의 도움이 존재했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지식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의사로서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님들,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값진 경험을 전수해주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동우회 '세신회' 선생님들, 수십 년간 개원의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부 공유해 주신 삼촌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 선정에서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교수님, 첫 모임부터 따뜻하게 환대하며 조언해주신 서울, 경기도 북부지회 원장님들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동기들, 새 출발을 응원해 준 전 직장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료하며, 아레나의 함성처럼 멀리 뻗어 나가는 연세아레나내과의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신장학연구회 소개



홍유아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신장내과

노인신장학연구회 소개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3%에 이르렀으며, 2036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콩팥병을 가진 노인 환자의 진료에서는 신기능 저하뿐 아니라 다양한 동반질환, 노쇠, 신체·인지 기능 저하, 영양 문제와 다약제 복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대체요법의 시행을 결정할 때에도 기대여명과 기능 상태, 삶의 질, 환자와 가족의 가치 및 치료 목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콩팥병 환자에게는 젊은 환자와 차별화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신장학연구회는 이러한 임상적 요구에 대응하여 국내 노인 콩팥병에 대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노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진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로 창립되었습니다. 초대 회장 신성준 교수(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장내과)를 시작으로 제2대 권순효 교수(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장내과), 제3대 정성진 교수(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신장내과)가 연구회를 이끌었으며, 현재는 제4대 양재원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장내과)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축적하고 실질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1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 결과보고 세미나 단체사진

주요 연구 사업 및 성과

연구회는 설립 이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의 임상 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임상 질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성과와 국내외에서 축적된 근거를 바탕으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만성콩팥병 코호트 구축

연구회는 2019년도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를 수주하여 전국 다기관이 참여하는 전향적 노인 만성콩팥병 코호트와 후향적 노인 말기콩팥병 코호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전향적 코호트에서는 70세 이상 만성콩팥병 환자의 임상 경과를 추적하며 현재까지 약 5년간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후향적 코호트에서는 노인 말기콩팥병 환자의 투석 시작 후 6개월 이내 조기 사망 위험요인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들 코호트에서 파생된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0여 편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NECA PRIDE 연구 수행

연구회는 202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구사업을 수주하여 잔여 신장기능이 있는 노인 말기콩팥병 환자에서 주 2회와 주 3회 혈액투석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하는 전향적 다기관 연구인 PRIDE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연구를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노인 말기콩팥병 환자에서 점진적 혈액투석의 안전성과 임상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환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석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회는 앞선 다기관 연구를 통해 축적한 연구 기반과 국내외 임상 근거를 토대로, 대한신장학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노인 콩팥병 환자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고령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신대체요법을 함께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2023 노인 말기콩팥병 환자의 신대체요법 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12월에는 「2025 근거 기반의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의 혈압 조절 진료지침」을 발간하여 노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혈압 목표와 치료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학술 및 교육 활동

연구회는 매년 12월 노인 콩팥병 관리, 심뇌혈관질환 위험 관리, 노쇠와 영양, 투석 및 보존콩팥관리 등 실제 진료에 필요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국내 노인신장학 분야의 학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 및 비전

노인신장학연구회는 지금까지 구축한 코호트의 추적과 분석을 이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다기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임상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노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 방향을 모색하고,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학술 활동을 통해 회원 간 교류와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노인신장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사진 2] 2025년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학연구회 연수강좌 단체사진

연구회 가입 및 참여 안내

노인신장학연구회는 노인 콩팥병의 진료와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한신장학회 회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연구회 사무국(gsnephro@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콩팥병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함께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신장학연구회의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홍보위원회 포부 및 소감



황원민 이사

대한신장학회의 홍보를 또 한 번 맡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응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홍보는 일도 많고 중요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20명의 홍보위원회 위원들이 똘똘 뭉쳐 즐겁고도 보람찬 2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현 간사

이번 임기에 새롭게 홍보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황원민, 이동형 이사님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능력 있는 위원님들과 이번 임기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콩팥병과 대한신장학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형 이사

황원민 이사님과 같이 홍보이사를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학회 홍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계명의대 박우영입니다. 이번 홍보위원회에서는 KSN NEWS 팀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요한 전 간사님께서 혼자서 멋진 KSN NEWS를 출판하셨는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KSN NEWS를 담당해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황원민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홍보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위원

이번 임기에도 홍보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홍보위원회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수병원 이하은입니다. 지난 임기에 이어 이번에도 홍보위원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신장학회의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이를 회원과 환자, 나아가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

지난 임기에 이어 홍보위원회 보도자료 팀장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기에도 신장질환과 학회의 중요한 현안들이 언론을 통해 조명 받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장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최아란 위원

지난 임기에 이어 이번에도 대한신장학회 유튜브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신장학회 선생님들과 함께 학회의 다양한 이야기와 올바른 신장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출연을 원하시는 선생님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번 임기에는 꼭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도록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아 위원

2024-2026년 임기를 뜻 깊게 마치고, 새 임기에도 홍보위원회의 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학회의 다양한 활동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깝고 따뜻하게 전달하며, 신뢰받는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한승석 위원

지난번에 이어 다시 홍보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신장학회 회원들께서 무엇을 궁금해하시고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지 늘 고민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학회 간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올해 새롭게 홍보위원을 맡게 된 경북의대 정유경입니다. 2년 간 홍보위원 업무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위원회 활동을 맡게 되어 긴장도 되고 부족할 수 있으나 경험 많은 이사님과 위원님들을 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신장학회 활동을 알리고 콩팥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홍보위원으로 일하게 된 생명선의원의 구상건입니다. 학회의 동정과 교육자료들을 열심히 전해주시는 홍보위원회 이사님 이하 홍보위원님들의 활약들을 감탄하며 바라보아왔는데, 그 일원으로 일할 수 있어 몹시 기대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소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권소이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학회와 환자를 연결하는 홍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우수한 성과와 다양한 활동, 그리고 콩팥 건강의 중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홍보위원회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며 학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백진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진혁입니다. 지난 임기에 이어 홍보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팀 선생님들과 함께 학회의 주요 성과와 정책 활동, 콩팥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박봉수입니다. 지난 임기에 이어 다시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 그리고 콩팥 건강의 중요성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훈 위원

이번에 홍보위원회 보도자료팀에 새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학회의 여러 활동들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이금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으로 새롭게 함께 하게 된 연세대학교 소아신장과 이금화입니다. 대한신장학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시는 황원민/이동형 이사님, 홍보위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아이들의 콩팥을 지키는 소아신장 의사로서, 건강한 콩팥이 평생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콩팥 질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종현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지종현입니다.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회의 다양한 학술 활동과 소식을 회원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한신장학회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홍보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홍보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로 그 어느때보다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장학회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 '내 신장이 콩팥콩팥'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넘어 더욱 널리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철호 위원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홍보위원으로 인사드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연희입니다. 좋은 분들과 뜻깊은 위원회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릴 때의 콩팥 건강은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모두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료실 밖에서도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회의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소통을 돕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곱게 물든 단풍길을 따라
가을의 정취를 즐기는

단풍길 걷기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는 극한 무더위의 기록을 매일 새로 갈아치웠던 올여름에는 시원한 가을을 더욱 염원하게 된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의 모습과 함께 가을 정취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은 전국 방방곡곡에 셀 수 없이 많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예쁜 단풍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로 하남 당정뜰, 안양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경주 경북천년숲 정원에서 가을 분위기를 함께 즐겨본다.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단풍과 한강 풍경이 어우러진 **당정뜰 단풍길**

당정뜰 메타세콰이어길은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나무고아원으로 1999년부터 도시개발 사업으로 버려지게 되는 나무들을 옮겨 심어서 만든 나무공원이다. 메타세콰이어는 천천히 물들어서 늦은 시기까지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는 나무로, 서울 근교 미사에 있는 당정뜰의 메타세콰이어길이 대표적이다. 메타세콰이어 산책로와 함께 최근에는 맨발 걷기가 가능한 모랫길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 1] 하남 당정뜰 단풍길

입구부터 하늘을 찌를 듯이 나란히 늘어선 나무들은 옮겨 심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잘 자랐고, 붉게 물든 자태가 가을 햇살과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준다. 아름다운 풍경을 이쪽저쪽에서 바라보다가 멋지게 구도를 잡아서 몇 장의 사진을 남기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연못으로 가는 안내판을 보고 따라가니 연못 위에 만들어진 나무데크를 따라 둘러보는 코스다. 황금빛 억새 위로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예봉산의 모습이 늠름하다. 연못을 따라 천천히 한 바퀴 돌다가 멀리 당정뜰 메타세콰이어길을 바라보니 길게 늘어선 붉은 나무들이 또 다른 풍광을 보여준다.

다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중간중간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열심히 사진에 담아본다. 데이트를 나온 연인들도 앞뒤로 방향을 돌려가며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으면서 감탄을 연발한다. 반대편에서는 강아지와 산책을 나온 아가씨가 강아지의 리드에 따라 걸으며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하다. 무언가를 들으며 운동 삼아 빠른 걸음으로 열심히 걷는 사람이나 손을 꼭 잡고 아빠를 따라 걷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이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곳으로 옮겨 심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칭찬의 말을 중얼거린다.

메타세콰이어길이 끝나고 체력단련장을 돌아 강변길을 따라 걸으면서 강가를 보니 여러 종류의 철새들이 자태를 뽐내며 휴식을 즐긴다. 길가 안내판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새들의 모습과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50개가 넘는다니 믿을 수 없다. 고니나 청둥오리처럼 아주 익숙한 이름에서부터 댕기흰죽지처럼 처음 보는 새 이름까지 정말 다양하다. 산책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강가의 백사장이 푸른 하늘과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으로 다가온다. 어린 시절 한강에서 수영하고 백사장에서 뛰놀던 추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

조그만 동산을 오르니 전망대처럼 한강과 주변 산세가 풍경화처럼 멋지게 그려진다. 벚나무 가로수들은 다음 봄에 예쁜 꽃을 보러 다시 오라며 우리에게 속삭인다. 쉼터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아름답게 물든 메타세콰이어길을 옆에서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출발점이다. 둑방길로 올라가서 걸었던 길을 여유롭게 조망하며 1시간, 5천 보의 당정뜰 걷기를 마무리한다.



[사진 2] 하남 당정뜰 강변길

푸른 하늘 아래 곱게 물든 가을 단풍을 즐기며 걷는 **안양수목원길**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수목원으로 국내 식물뿐만 아니라 해외 식물 유전자원 등 다양한 식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식물 교육 및 수목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 연구기관이다. 귀중한 수목자원들이 잘 보존된 곳으로 특히 가을에는 다양한 정원과 함께 예쁜 단풍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단풍철을 맞아 1개월만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기에 맞춰 아름다운 단풍길을 기대하며 9시 개방 시간 전에 도착해서 정문이 열림과 함께 걷기에 도전한다. 올가을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날씨로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늦어져서 걱정하며 왔는데 입구부터 붉은 단풍나무가 오는 손님을 반겨준다. 후문까지 이어지는 중앙산책로를 따라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어우러져 울긋불긋 단풍길을 만들어준다. 어디를 찍어도 아름다운 가을 사진이 만들어지는 가을 풍경에 모두가 감탄을 연발한다.

개천을 건너 만나는 산책로의 단풍이 오늘 단풍길의 절정 코스다.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여러 컷의 작품 사진을 추억으로 남기고 길을 이어간다. 이른 아침부터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같이 온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다. 아주 정겨워 보이는 노부부에게 다가가 찍어드리겠다고 하니 정말 고마워하신다. 붉게 물든 단풍 터널을 지나 후문에 도착하니 문밖에 산책로가 또 다른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로 눈길을 끈다.

반환점을 찍고 다시 수목원으로 들어와서 대잔디광장으로 향하니 커다란 철쭉나무 가족이 반겨준다. 넓은 잔디광장 의자에 행복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며 앉아 있는 연인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다.

온실을 지나 진달래길을 따라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가는데 반대편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인사를 한다. 진달래길 끝자락에 예쁜 단풍나무는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선물을 선사한다.

다리를 건너 단풍나무길로 들어서니 잘 익은 탱자나무가



[사진 3] 안양수목원 산책로 단풍길

길을 안내하고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나도 모르게 깊어지는 가을의 향기에 흠뻑 심취한다. 단풍나무 터널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비춰서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어, 2주 전 방문했을 때의 초록 숲길이 믿기지 않는다. 단풍을 배경으로 추억의 사진을 남기고 단풍나무길을 따라 걸으니, 중앙산책로로 이어지고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아까 지났던 길이지만 햇살의 조명으로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곱게 물든 단풍나무와 은행나무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온다. 숙근초원에 가서 가을의 상징인 예쁜 국화들을 천천히 감상하면서 낙엽을 밟으며 마지막 가을을 즐긴다. 산책로를 따라 정문으로 나와 100분, 9천 보의 안양수목원길 가을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포항물회로 이른 점심과 함께 오늘 코스를 되돌아보며 단풍길 걷기를 마무리한다.

곱게 물든 가을 단풍과 아름다운 정원이 이어지는 **경북천년숲정원**

천년 신라의 숨결이 스며있는 경주 동남산 자락에 자리한 경북천년숲정원은 산림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산림환경연구원이다. 숲공원으로 조성되어 2023년부터 시민에게 개

방된 국가정원으로 국내에서는 5번째이고 경상북도에서는 1호다. 세부 구역별로 다양한 꽃과 나무, 특징적인 조형물로 꾸며져 있고 계절마다 색다른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가을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예쁜 단풍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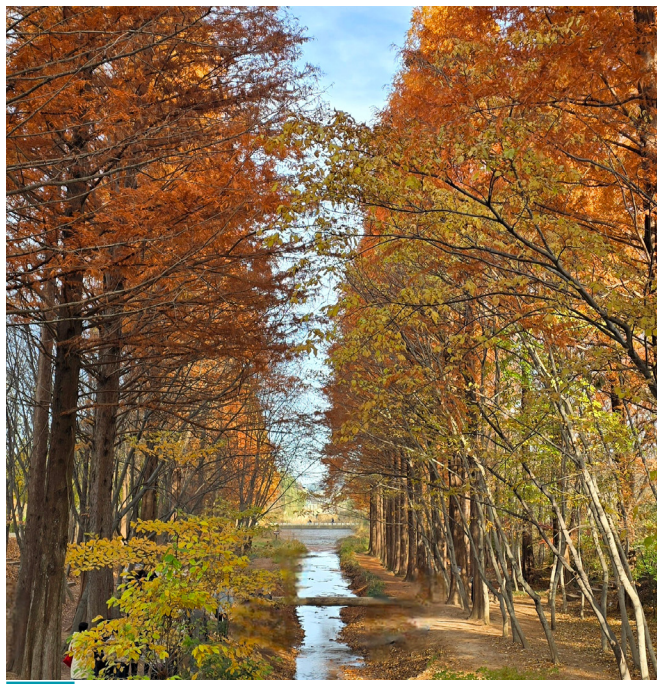
가을의 인기를 고려하여 입장 시간인 10시 전에 미리 도착했는데도 이미 사람들로 가득하다. 입구를 지나 개천을 건너는 다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길게 늘어선 메타세콰이어들이 오는 손님들을 반가이 맞아준다. 다리 밑으로 개천을 가로질러서 놓아진 외나무다리에 서면 맑은 실개천의 수면에 본인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거울숲이다. 이 외나무다리는 이곳의 상징이자 유명한 포토존으로 이미 대기 줄이 끝이 없다.

다음 순서 대기자가 외나무다리에 올라오는 사이에 다리 위에서 거울숲 전체 풍광을 사진에 담아본다. 찍힌 사진을 확인하니 왜 그렇게 길게 기다려서 인생샷을 찍는지를 알 수 있을 듯하다. 다리를 건너 천년기념물원까지 시원하게 뻗은 산책로를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메타세콰이어들이 곱게 물들어 멋진 풍광을 선사한다. 나무 사이로 엄마와 손을 꼭 잡고 만세를 부르며 걸어오는 아기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우측 꽃보라정원으로 천천히 들어서니 벌써 겨울을 준비하며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쓸쓸히 늘어서 있다. 서라벌광장으로 이어가니 확 트인 광장과 함께 주변을 둘러싼 메타세콰이어들이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어 멋진 풍경화가 완성된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겨울정원을 둘러보고 버들못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수면 위에 비친 버드나무가 모델이 되어 사진작가들을 기다린다.

구름 폭포가 있는 왕의정원에는 비록 흐르는 물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상상 속의 폭포를 그려본다. 천년미소원에서는 신라의 천년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들이 방문객들을 반겨 맞아준다. 거울숲 다리 밑 개천가를 따라 반대편 끝 징검다리로 가서 실개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 숲그늘정원으로 들어서니 은행나무들이 오라고 손짓한다. 떨어진 노란 낙엽을 주워서 날리며 작품 사진을 만드는 젊은 연인의 행복한 모습이 사랑스럽다.



[사진 4] 경북천년숲정원 거울숲

정문 밖 미리내정원을 둘러보고 도로를 건너 산림연구원으로 들어서니 아주 한산한 느낌이다. 연구원 입구에서 숲해설사 한 분이 열매와 꽃을 모아놓은 표본을 가리키며 재미난 강의를 이어간다. 좌측에 있는 드리숲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돌아보고, 반대편 아름숲으로 가니 붉은 메타세콰이어숲과 노란 은행나무가 어우러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름숲 산책로를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90분, 6천 보의 행복한 숲정원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TIP.

당정뜰 제방도로에 만든 모랫길에서 맨발걷기를 즐길 수도 있고, 강변을 걷는 위례사랑길이나 위례강변길, 산길을 걷는 위례둘레길이나 위례역사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안양수목원의 입장을 위한 사전예약이나 산림치유, 목공, 숲해설 프로그램은 서울대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필요하다. 경북천년숲정원을 둘러보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궁과 월지, 선덕여왕릉과 월정교를 방문해 봐도 좋다.

신장 질환 치료의 든든한 동반자, SK케미칼



조준수
SK케미칼
마케팅기획3팀 PM

인류의 건강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 SK케미칼

SK케미칼은 1969년 창립 이래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션 아래 대한민국 제약 및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국내 최초 신약 발매부터 천연물 신약, 개량신약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역량을 구축해 왔으며,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에 이르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경영의 선두주자

SK케미칼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Green Chemicals'와 'Life Science'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Net Zero) 달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SK, Save the Kidneys – 신장 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

SK케미칼은 신장 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동반되는 다양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진 1] SK케미칼 본사 전경 모습

[주사용 후탄(Futhan®)] 주사용 후탄(성분명: Nafamostat mesilate)은 혈액투석을 비롯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행 시 회로 내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소 항응고제입니다. 후탄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 전신적인 항응고 효과가 빠르게 소실되므로,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최근 대한신장학회 중환자신장학연구회에서 발표한 "2025 지속신대체요법 근거기반 진료지침"에서는 Heparin-free와 비교하여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CKRT 필터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페브릭정(Feburic®)] 페브릭정(성분명: Febuxostat)은 잔틴산화효소(Xanthine Oxid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혈중 요산 수치에 신속하게 작용하는 요산생성억제제입니다. 통풍 환자의 만성 고요산혈증 치료에 허가되어 있

으며, 별도의 급여 제한 없이 허가사항에 따라 1차 치료제로 급여 인정됩니다. 특히 페브릭정은 한국인에서 보유율이 약 12.2%로 알려진 HLA-B*5801 유전형 검사 결과 양성인 환자에게 알로푸리놀의 대체 치료 옵션으로 권고되는 대체 약제입니다.

[인벨라정(Invela®)] 인벨라정(성분명: Sevelamer carbonate)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고인산혈증을 조절하는 비칼슘계 인결합제입니다. 인벨라정은 3상 임상을 거쳐 허가된 제품이며, Lipid Profile 개선, Uric acid 감소와 같은 다면발현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EMA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OECD 국가 3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젬플라주(Zemplar®)] 젬플라주(성분명: Paricalcitol)는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SHPT)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활성형 비타민 D 유도체이며, 안전한 바이알 제형의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젬플라주는 Calcitriol 대비 낮은 장내 칼슘 흡수를 나타내고, 부갑상선호르몬(PTH)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레밋치 구강붕해정(Remitch®)] 레밋치 구강붕해정(성분명: Nalfurafine hydrochloride)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혈액투석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을 개선하는 희귀의약품이며, 가려움을 억제하는 카파(κ)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가려움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카 시리즈(Cosca®)] 코스카(성분명: Losartan)는 혈압 강하 효과와 더불어 신장 보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저용량인 코스카 25 mg을 포함한 다양한 용량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에게 최적화된 처방이 가능합니다.

[프로맥정(Promac®)] 프로맥정(성분명: Polaprezinc)은 인체 필수 미량원소인 아연(Zinc)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점막 보호 및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방어인자 증강제입니다.

[뉴도탑 패치(Newdotop®)] 뉴도탑(성분명: Lidocaine)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 완화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도탑 패치는 통증 부위에 직접 부착하여 전신 부작용 우려를 줄이면서 빠르고 효과적인 통증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진 2] 대한신장학회 임원진과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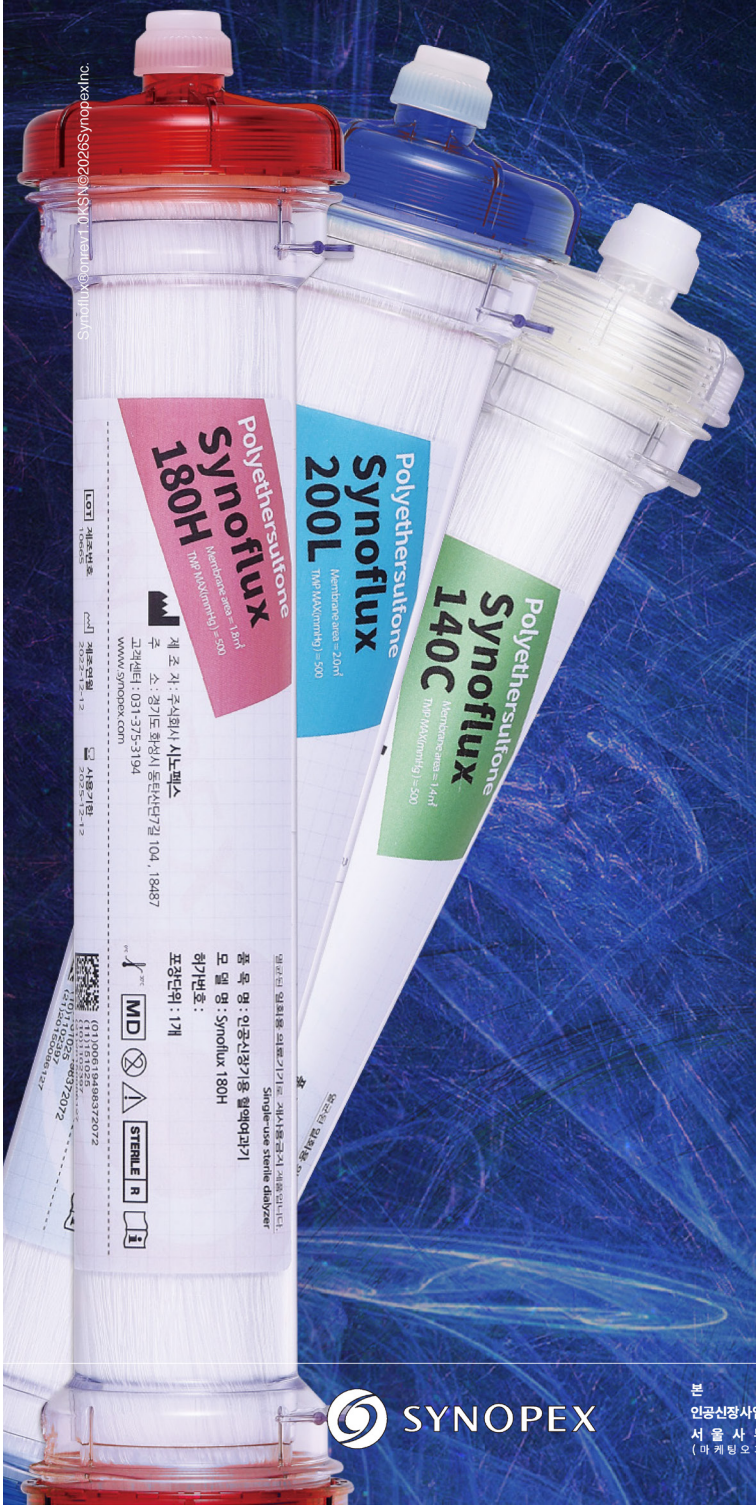
SK케미칼은 대한신장학회의 오랜 주후원사로서 학회의 발전과 신장 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여정에 언제나 진정성 있게 동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최신 의학 지견을 공유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진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해결하고,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치료제 개발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며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SYNOPEX™
www.synopex.com

인 공 신 장 기 용 혈 액 여 과 기

Synoflux® Series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신개념 PES 멤브레인
30-35μm의 투석막 두께와 향상된 성능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11종 모델
최첨단 로봇 설비가 작동하는
고품질 자동화 시스템에서 생산





PRO800
이동형 RO 정수장치

SP8200H
인공신장기

Filter Experts Since 1985

SYNOPEX

본 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 1길 54-42
인공신장사업본부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7길 104
서 울 사 무 소 (마케팅오피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96길 6 LG트윈텔 1710호

TEL. 031-379-7777 FAX. 031-379-7777
TEL. 02-556-1056
TEL. 02-3442-0602 FAX. 02-3442-0960

DAEWON

캡슐형 투석지연제
레나메진 캡슐
(Carbon adsorbent)

요독증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캡슐형 투석지연제, 레나메진

레나메진 캡슐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해 주세요

- 1회 2g을 약물 손실 없이 모두 복용
- 국산원료 국내생산
- HPMC 캡슐
- 캡슐형 투석지연제
- 휴대가 편리한 파우치 포장 (Pouch)
- 경제적 약가



DAEWON 대원제약 (우)0480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86 **TEL:** (02)2204-7000, (수신자부담) 080-497-8272 **FAX:** (02)3436-4878 **Website:** www.daewonpharm.c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설명서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RENAL CARE



ELISIO™ HX

MEDIUM CUT-OFF MEMBRANE[1]
SHARP CUT-OFF TECHNOLOGY[2]

NIPRO MEDICAL KOREA

Reference
1. Maduell F,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the Medium Cut-Off Elisio-HX Dialyzer. Blood Purif. 2022
2. Puyol, et al. abstract submitted to EDTA 2022

서울본사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길 31 자유빌딩 6층 | T 02.762.3444 | F 02.743.7565
대전지점 :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92, 209호 | T 042.825.3445 | F 042.825.3440
광주지점 :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02번길 4, 202호 | T 062.716.3445
대구지점 :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4길 59, 2204호 | T 053.719.4586 F 053.719.4587
부산지점 : 부산시 사상구 모라로 22 부산벤처타워 708호 | T 051.441.3444 | F 051.441.3445

www.nipro.co.kr

국내 최초 지속형 ESA 제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

Darbepoetin alfa

Prefilled syringe 20μg/30μg/40μg/60μg/120μg



- 국내 최초 **Darbepoetin alfa** 바이오 시밀러
- **1주~4주 1회 용법**, 투약 편의성 개선
- **국내 3상 임상**으로 대조약과 동등한 효과 및 장기 안전성 입증

종근당



투석막 하나를 변경하여 **혈액투석 치료 결과들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10]

CHANGE ONE THING.

중/대분자(500-45,000 Da) 요독소는 염증,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 및 기타 투석 관련 동반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1-3]

50%

심혈관질환은 염증, 죽상동맥 경화증 및 석회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부전(Kidney failure) 환자의 약 50%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합니다.[4-6]

High-Flux

기존의 고유량 투석막은 중/대분자 요독소 (최대45,000 Da)의 제거에 제한적 입니다.[7]

CHANGE EVERYTHING.

Theranova 투석막의 차별화된 디자인은 고유량 투석막에 비해 중/대분자 (최대 45,000 Da)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필수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유지하고 알부민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2,3,8-10,12,13]

후향적 분석(n=81) 결과, HDx 요법은 입원 일수 및 센터 내 약제 사용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14] 무작위 대조 연구 (n=171)에서 all-cause hospitalization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5] 일부 환자에서는 특정 염증 지표의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n=41).[16]

HDx 요법은 환자의 증상부담,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 요독성 소양증 (Uremic pruritus) 및 투석 회복 시간 등 환자가 보고한 신질환 관련 삶의 질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8,9,17,18]

KO-RC46-240042

REFERENCE 1. Wolley M, Jardine M, Hutchison CA. Exploring the Clinical Relevance of Providing Increased Removal of Large Middle Molecules. Clin J Am Soc Nephrol. 2018 May 7;13(5):805-814. **2.** Hutchison CA, Wolley M. The Rationale for Expanded Hemodialysis Therapy (HDx). Contrib Nephrol. 2017;191:142-152. **3.** Zweigart C, Boschetti-de-Fierro A, Hulko M, et al. Medium cut-off membranes - closer to the natural kidney removal function. Int J Artif Organs. 2017 Jul 5;40(7):328-334. **4.** Foley RN, Parfrey PS, Sarnak MJ. Clinical epidemiology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chronic renal disease. Am J Kidney Dis. 1998 Nov;32(5 Suppl 3):S112-9. **5.** Cobo G, Qureshi AR, Lindholm B, et al. C-reactive Protein: Repeated Measurements will Improve Dialysis Patient Care. Semin Dial. 2016 Jan-Feb;29(1):7-14. **6.** Yeun JY, Levine RA, Mantadilok V, et al. C-Reactive protein predicts all-cause and cardiovascular mortality in hemodialysis patients. Am J Kidney Dis. 2000 Mar;35(3):469-76. **7.** Ronco C, La Manna G. Expanded Hemodialysis: A New Therapy for a New Class of Membranes. Contrib Nephrol. 2017;190:124-133. **8.** Lim JH, Park Y, Yook JM, et a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medium cut-off versus high-flux dialyzers on quality of life outcomes in maintenance hemodialysis patients. Sci Rep. 2020 May 8;10(1):7780. **9.** Kirsch AH, Lyko R, Nilsson LG, et al. Performance of hemodialysis with novel medium cut-off dialyzers. Nephrol Dial Transplant. 2017 Jan 1;32(1):165-172. **10.** Boschetti-de-Fierro A, Voigt M, Storr M, et al. MCO Membranes: Enhanced Selectivity in High-Flux Class. Sci Rep. 2015 Dec 16;5:18448. **11.** Theranova Instructions for Use. 2020. **12.** Krishnasamy R, et al. Trial evaluating mid cut-off value membrane clearance of albumin and light chains in hemodialysis patients (REMOVAL-HD): a safety and efficacy study. ASN 2018 Kidney Week Abstract TH-PO353. **13.** Bunch A, et al. Long Term Effects of Expanded Hemodialysis (HDx) on Clinical and Laboratory Parameters in a Large Cohort of Dialysis Patients. ASN 2018 Kidney Week Abstract FR-PO766. **14.** RM Sanabria, et al. Expanded Hemodialysis and Its Effects on Hospitalizations and Medication Usage: A Cohort Study. Nephron. 2021;145(2):179-187. **15.** Blackowicz M, et al. Health Economic Evaluation of the Theranova 400 Dialyzer Among Hemodialysis Patient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orm a Randomized-Controlled Trial. ASN 2020 Kidney Week abstract. **16.** Cantaluppi V, et al. Removal of large-middle molecules, inhibition of neutrophil activation and modulation of inflammation-related endothelial dysfunction during expanded hemodialysis (HDx). Nephrol Dial Transplant 2019. Abstract FO048. **17.** Alarcon JC, Bunch A, Arcila F, et al. Impact of Medium Cut-Off Dialyzers on Patient-Reported Outcomes: COREXH Registry. Blood Purif. 2021;50(1):110-118. **18.** Kharbanda K, Herring A, Wilkinson F, et al. A Randomised Stud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Medium Cut-Off Haemodialysis On Markers of Vascular Health Compared With On-Line Haemodiafiltration (MoDal Study). Poster clinicaltrials.gov (NCT03510520).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14층 대표전화 : 02-6262-7100

Vantive

FRESENIUS
MEDICAL CARE



Creating a future worth living.
For patients. Worldwide. Every day.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는 전 세계 약 410만 명의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를 위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투석 전문 기업입니다.**

Fresenius Medical Care is the world's leading provider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renal diseases of which around 4.1 million patients worldwide regularly undergo dialysis treatment. United by a shared purpose of creating a future worth living for chronically and critically ill people, we care for more than 332,000 dialysis patients around the globe. Their well-being always comes first.

(주)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4층, 14층 · Phone: 02-2146-8800
www.freseniusmedicalcare.kr

KFI-Misc-000002 © 2024 Fresenius Medical Care Deutschland GmbH

Symptom science,
Patient oriented dialysis

It's time to approach as patient-centred for the management of unpleasant symptom in kidney disease.[1]

The urgent goal of kidney disease for living well i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unpleasant symptoms as patient-oriented approach.[1]

Patient-centred approach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CKD management to reduce unpleasant symptoms and suffering.[1]



환자 중심의 투석 치료를 위한 **(주)보령의 Dialyzer**

Patients **Oriented** Dialyzer Line Up

EK[2]	**HX**[3]	**UX**[2]	**NV**[4]	**NF**[5]
polyethersulfone	Medium cut-off	Cellulose Triacetate	Hydrolink (PolySulfone)	PolyMethyl-methacrylate
PES	MCO	CTA	PS	PMMA

※가상의 환자 프로파일입니다.
CKD, chronic kidney disease.

Ref.) 1. Kalantar-Zadeh K et al. Nat Rev Nephrol. 2022;18(3):185-198. 2. 의료기기 허가사항.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accessed on 2024.07.23. 3. Maduell F et al. Blood Purif. 2023;52(1):68-74. 4. Ronco C, et al. Int J Artif Organs. 2017 May;40(5):234-239. 5. Torii Y, et al. Blood Purif. 2022 Oct 20:52(Suppl 1):1-7.

EK & HX & UX (수입사: (주)니프로동덕메디칼, 제조사: 일본 NIPRO), NV & NF (수입사: 엠에스메디칼, 제조사: 일본 To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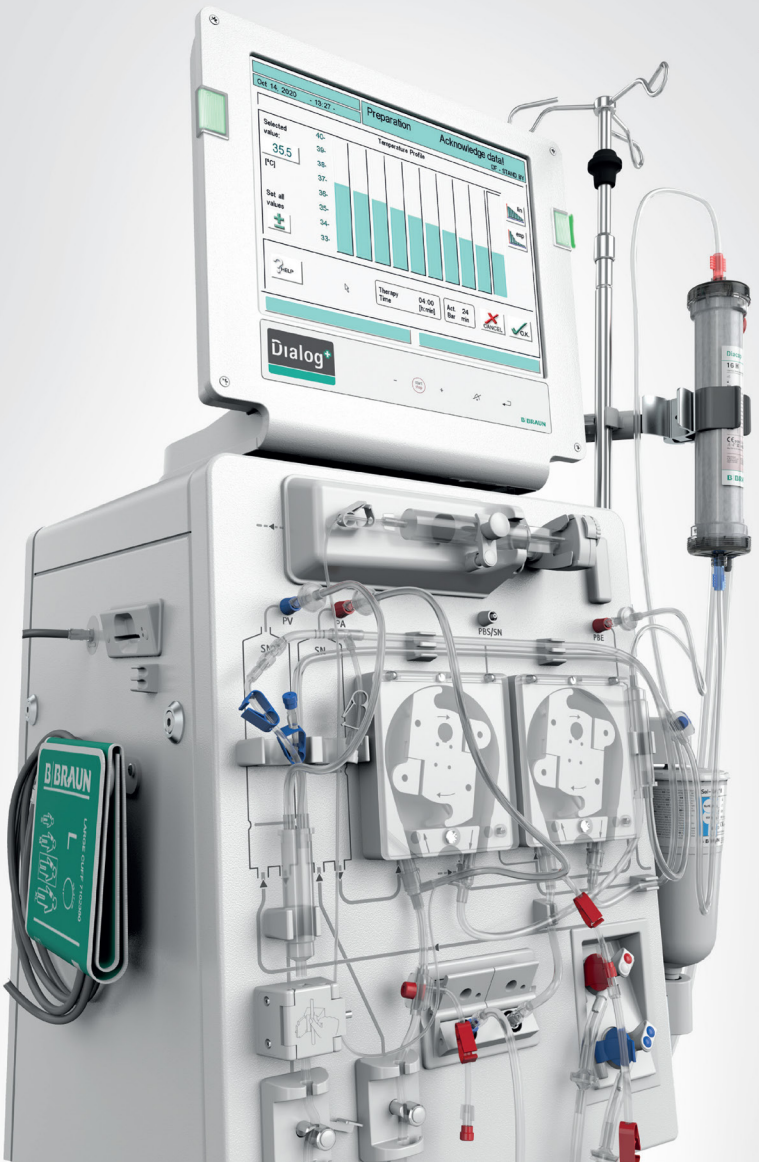
BORYUNG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소비자상담실 Tel.080.708.8088

BR-1-EKD-24-006

B|BRAUN
SHARING EXPERTISE

투석 중 저혈압 예방에 효과적인 저온투석 치료[1,2,3]

오직 B. Braun Dialog+ 에서만 가능한 Temperature profile



- 국내유일 온도조절 프로파일
- 저온투석 가이드라인
- 편하고 안정적인 투석치료 제공
- 투석액 온도 점진적 감소(예: 37→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5층 T. 02-3459-7800 | bbraunkorea@bbraun.com | www.bbraun.co.kr

1. K/DOQI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ardiovascular Disease in Dialysis Patients. AJKD. 2005 April; 45 (3): 16-153
2. Mustafa et al. Effect of Lowering the Dialysate Temperature in Chronic Hemodialys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Clin J Am Soc Nephrol 11: 442-457, 2016.
3. Dasgupta et al. Associations Between Hemodialysis Facility Practices to Manage Fluid Volume and Intradialytic Hypotension and Patient Outcomes. CJASN 2019; 14:385-393

022026-KMT-24-468302

보건의료전문가용
전문의약품

KALIMATE®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Powder / Granule / Suspension

국내 최초 출시된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제제[1,*]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고칼륨혈증 치료제[2]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세가지 제형
(산/과립/현탁액)[1]

고칼륨혈증 치료제

카리메트®

산 / 과립 / 현탁액

REFERENCES

1. 카리메트® 산, 과립, 현탁액 제품정보, Available at:https://nedrug.mfds.go.kr/searchDrug (accessed 18 Jan 2024).
2. IQVIA MAT 3Q 2023, V03G 기준

* 카리메트산은 원개발사인 일본 니켄샤 (현 Kowa company)와 Licencing을 통해 1984년 국내에 최초로 출시된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제제입니다.
*제품의 Product information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메트® 산 | 카리메트® 과립 | 카리메트® 현탁액

수입자 (카리메트®현탁액)

Kowa

한국코와(주) 06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02, 7층
080-851-4800

판매자 (카리메트® 산/과립/현탁액)

Alvogen

알보젠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 타워 5층
02-2047-7700 (소비자 상담 번호)


CKD 환자의 질환 치료를 위해[1,2]
미쎄라®와 렌벨라®가
한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Stay stable,
Mircera®
CKD 환자의
안정적인 Hb level
관리를 위해[1,3]
Real Value,
Renvela®
체내 흡수 및 축적되지 않는
비칼슘계열 인결합제[2,4]
CKD, chronic kidney disease; Hb, hemoglobin
References 1. 미쎄라® 국내 허가사항 (최신개정일자: 2025-06-24) 2.렌벨라®정 국내허가사항 (최신개정일자: 2023-06-20) 3. Locatelli F, et al. Once-Monthly Continuous Erythropoietin Receptor Activator (C.E.R.A.) in Patients with Hemodialysis-Dependent Chronic Kidney Disease: Pooled Data from Phase III Trials. Adv Ther. 2016;33(4):610-625. 4. Rodriguez-Osorio L, et al. Use of sevelamer in chronic kidney disease: beyond phosphorus control. Nefrologia. 2015;35(2):207-217.
미쎄라® 프리필드주
미쎄라®의 제품정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안개정년월일 2025.06.24)
렌벨라정(세벨라머탄산염)
렌벨라정의 제품정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안개정년월일 2023.06.20).
HANDOK
(주)한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Tel. 02-527-5114
www.handok.co.kr
Roche
(주)한국로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17층 (서초동, 지티타워(이스트)) (우: 06615)
Tel. 02-3451-3600
sanofi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
Tel. 02-2136-9000 Fax. 02-2136-9099
MIRCERA®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
RenVela®
sevelamer carbonate
KR.SEV.25.07.01 | M-KR-00003627


대한신장학회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